# 농업·농촌경제동향

201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정책지원팀
(한재환 jhhan@krei.re.kr/조우림 urimcho@krei.re.kr/
장도환 zzangdh@krei.re.kr)

연락처: 02-3299-4353 / 팩스: 02-964-5631

# 목 차

## Ⅰ.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5
4. 물가 ····· 7
5. 금융·환율 ····· 13

##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6
2. 농림어업 취업자 ····· 22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4
4.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조기경보지수 ····· 31

##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34
2. 엽근채소 ····· 38
3. 양념채소 ····· 44
4. 과일 ····· 52
5. 과채 ····· 58
6. 축산 ····· 63

**특별 주제 1.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사례와 한계** ····· 73

**2.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 ····· 90

# 【요 약】

## Ⅰ. 국내경제 동향

- 2011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함.
- 2011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2011년 3/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와 금속제품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함.
- 2011년 3/4분기 총수입은 원자재,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함.
- 2011년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01천명 증가한 24,673천명임.
- 9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2.8% 증가함.
- 2011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함 (실질로는 0.5% 증가).
- 2011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22.2로 전분기 대비 1.4% 상승, 전년 동기대비 4.8% 상승함.
- 2011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2.7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대비 6.2% 상승함.
- 2011년 2/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함. 2011년 8월 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증가율(3.8%)보다 상승한 5.4%임.

- 2011년 9월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8월말 대비 급등함.

## Ⅱ. 농촌경제 동향

- 2011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0.8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함.

- 2011년 10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9월보다는 3.8% 하락함.

- 2011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704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전분기 대비 1.8% 감소함.

- 2011년 3/4분기까지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총 5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0.3% 증가함. 농림축수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3,294백만 달러로 토마토, 유자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0.0% 증가함.

- 2011년 3/4분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1,51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함.

##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 1.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사례와 한계

- 로컬푸드(Local Food)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Slow Food), 미국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 등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운동의 형태로 세계 식량체계의 대안적인 모델로 나타났음.

- 로컬푸드는 일정 지역범위에 한정된 개념이라기보다 로컬푸드가 갖는 지속가능성(안전성, 경제성, 환경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점이 중요함.

- 강원 원주의 새벽시장은 산자가 직접 판매하므로 소량 생산되는 품목, 가공·조리품, 표준 규격화 되지 않은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에 기여함. 특히 고령자나 여성농민의 참여도 많은데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액이지만 소득의 기회가 됨.

- 충북 청주 농민장터는 기존 농협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은 형태임.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긴 하나 연 2~4회 개장되는 비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고 농산물의 품절이나 품목 구색이 부족하여 장(場)의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여 거래의 지속성은 낮음

- 나주시 학교급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음. 그러나 나주시의 학교급식 유통은 소량의 농산물 거래에서 나타나는 물류의 비효율성이 큰 한계임.

- 양평군은 이미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역 학교급식 유통에 추가 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소요됨. 양평지방공사의 업무 중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의 수집체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 물류체계에 분산기능을 첨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임.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의 운영주체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판매를 주도하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형태임.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차이가 있음. 새벽시장과 농민장터에서 생산자는 항시 판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형태이고, 소비자는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야 거래는 지속됨. 반면 제철꾸러미처럼 계약관계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다면 계약을 해지하므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만족도는 같다고 볼 수 있음.

- 전남 나주와 경기 양평은 인구수나 학교급식 대상 학생 수가 비슷함.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업에 진출하고 지역농산물 수집체계를 갖춘 경기 양평과 달리 전국의 여느 농촌과 같이 개별 생산자의 출하체계만 있는 전남 나주는 학교급식의 농산물 물류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로컬푸드는 가까운 장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교류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음.

- 반면, 대량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생산자에게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산 농산물은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등의 한계점이 있음.

## 2.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8건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품목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378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음.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72.8%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의견도 67.8%로 높게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구매경험자의 만족수준은 '높다'는 응답이 59.6%로 비경험자의 16.5%보다 크게 높았음. 반면, 유기가공식품 구매 비경험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은 '낮다'는 의견이 18.4%로 구매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모두 국산을 더 신뢰하기는 하나, 구매경험자의 국산 신뢰비중이 20.3%P 더 높게 나타남. 반면, 구매 비경험자는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중이 19.4%로 경험자의 2.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유기가공식품 구매 경험자의 58.8%, 구매 비경험자의 80.6%가 장래에 건강을 위해 안전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음.

-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은 '대형할인마트 36.5%', '직거래 단체' 17.4%, '전문매장' 17.4% 등으로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확대를 위해서 구매 경험자는 가격인하(48.0%), 신뢰제고(24.8%), 취급매장 증가(17.8%) 등이 필요하고, 구매 비경험자는 가격인하(47.6%), 신뢰제고(4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방안 도출은 유용할 것임.

- 유기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가격인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됨. 구입경험자의 지불의향 가격은 1.5배, 구입비경험자는 1.4배로 나타나 국산원료-국산가공식품의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차이 2.02배를 크게 상회하므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 소비자의 국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의 편리성이 제고되어야 함.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국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기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략은 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농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제도 등 전반적은 분야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Ⅰ. 국내경제 동향 1)

## 1. 경제성장

- 2011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증가함.
  - 농림어업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재배업이 부진하였고,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어획량도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함.
  - 제조업은 금속제품,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함.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 등이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1년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은 상승폭이 확대됨.
  - 민간소비는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와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함.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과 건물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4.2% 감소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늘어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 총수출은 자동차 및 금속제품 등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함.
  - 총수입은 고유가,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원자재, 소비재 수입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함.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9 | 2010p | | | | | 2011p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G D P 성장률 | 0.3 | 6.2 | 8.5 | 7.5 | 4.4 | 4.7 | 4.2 | 3.4 | 3.4 |
| 최종소비지출 | 1.2 | 3.9 | 5.9 | 3.4 | 3.4 | 3.0 | 2.5 | 2.8 | 2.5 |
| (민 간) | 0.0 | 4.1 | 6.6 | 3.5 | 3.6 | 2.9 | 2.8 | 3.0 | 2.2 |
| 총고정자본형성 | -1.0 | 7.0 | 12.5 | 6.8 | 6.8 | 3.4 | -2.2 | -1.1 | -1.6 |
| (건 설) | 3.4 | -1.4 | 4.3 | -2.3 | -3.1 | -2.9 | -11.9 | -6.8 | -4.2 |
| (설 비) | -9.8 | 25.0 | 29.1 | 30.5 | 26.6 | 15.9 | 11.7 | 7.5 | 1.4 |
| 총 수 출 | -1.2 | 14.5 | 16.7 | 14.5 | 11.6 | 15.7 | 16.8 | 9.6 | 9.4 |
| 총 수 입 | -8.0 | 16.9 | 21.5 | 18.0 | 14.7 | 14.2 | 10.8 | 7.9 | 6.4 |

주: 2010p, 2011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 고용

- 2011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1%, 취업자수는 전년 1.5%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2%로 전년 동기보다 0.4%p 낮은 수준이며, 전 분기보다도 0.2%p 하락함.

- 2011년 10월 취업자는 24,67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01천명(2.1%) 증가함.

- 10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년 동월보다 0.4%p 하락하였고, 전월보다는 0.1%p 상승함.

- 10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27만2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6만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1만9천명) 등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5만5천명), 농림어업(3만3천명) 등에서는 감소하였음.

**【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 | 2010 | | | | | 2011 | | | 전년 동기비 증감률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 경 제 활 동 인 구 | 24,748 | 24,166 | 25,038 | 24,993 | 24,796 | 24,488 | 25,437 | 25,269 | 1.1 |
| (경제활동참가율) | 61.0 | 59.8 | 61.8 | 61.5 | 60.8 | 59.9 | 62.0 | 61.5 | - |
| 취 업 자 | 23,829 | 23,037 | 24,170 | 24,120 | 23,989 | 23,459 | 24,572 | 24,483 | 1.5 |
| · 농 림 어 업 | 1,567 | 1,235 | 1,733 | 1,754 | 1,544 | 1,207 | 1,736 | 1,704 | -2.9 |
| · 광 공 업 | 4,049 | 3,934 | 4,035 | 4,072 | 4,153 | 4,163 | 4,143 | 4,054 | -0.4 |
| (제 조 업) | 4,028 | 3,911 | 4,015 | 4,053 | 4,131 | 4,139 | 4,127 | 4,041 | -0.3 |
|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 18,214 | 17,868 | 18,402 | 18,293 | 18,292 | 18,090 | 18,693 | 18,726 | 2.4 |
| (건 설 업) | 1,753 | 1,644 | 1,816 | 1,791 | 1,761 | 1,641 | 1,774 | 1,755 | -2.0 |
| 실 업 자 | 920 | 1,130 | 868 | 873 | 808 | 1,028 | 865 | 786 | -10.0 |
| 실업률(계절조정) | - | 4.3 | 3.4 | 3.6 | 3.4 | 3.9 | 3.4 | 3.2 | |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 2010. 10 | | 2011. 9 | | 2011. 10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감률 |
| 경 제 활 동 인 구 | 25,004 | 1.4 | 25,076 | 0.7 | 25,409 | 1.6 |
| 취 업 자 | 24,172 | 1.3 | 24,318 | 1.1 | 24,673 | 2.1 |
| 고 용 률 | 59.4 | | 59.1 | | 59.9 | |
| · 농 림 어 업 | 1,790 | -3.0 | 1,698 | -3.3 | 1,757 | -1.8 |
| · 광 공 업 | 4,117 | 6.1 | 4,025 | -1.4 | 4,060 | -1.4 |
| (제 조 업) | 4,098 | 6.2 | 4,014 | -1.2 | 4,044 | -1.3 |
| · 건 설 업 | 1,780 | 5.6 | 1,723 | -2.8 | 1,821 | 2.3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5,394 | -1.1 | 5,420 | 0.8 | 5,513 | 2.2 |
| · 전기·운수·통신·금융 | 2,841 | 3.0 | 3,002 | 6.1 | 3,000 | 5.6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 8,250 | 0.2 | 8,450 | 2.5 | 8,521 | 3.3 |
| 실 업 률 | 3.3 | | 3.0 | | 2.9 | |
| (계 절 조 정) | (3.5) | | (3.2) | | (3.1) | |

자료: 통계청

## 3. 소비

- 2011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0.9%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3.0% 증가함.

- 2011년 9월 소매판매는 예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전월에 판매가 선반영되는 효과로 인해 전월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대비로는 2.8% 증가함.
  - 전년 동월대비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 업태별로는 명절효과로 전월에 크게 증가하였던 백화점과 무점포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대형마트, 전문상품소매점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향후 소비여건은 고용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소매 판매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9 | 2010 | | | | | 2011 |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8월p | 9월p |
| 소 매 판 매 | 2.6 | 6.6 | 9.7 | 4.9 | 7.5 | 5.1 | 5.1 | 5.7 | 5.2 | 2.8 |
| (내 구 재)[1] | 8.1 | 14.9 | 29.6 | 5.6 | 17.0 | 10.6 | 12.9 | 17.5 | 12.2 | 6.4 |
| (준내구재)[2] | 0.3 | 6.8 | 2.5 | 6.2 | 6.6 | 11.1 | 6.1 | 5.6 | 3.8 | 4.2 |
| (비내구재)[3] | 1.2 | 2.2 | 3.2 | 3.3 | 3.0 | -0.7 | 0.8 | -0.4 | 2.6 | 1.3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1년 8월p, 9월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1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함.
  - 고용 확대 등에 따라 근로소득(4.8%) 및 사업소득(2.8%) 증가
  - 공적이전 및 가구간 이전 증가에 따른 이전소득(7.9%) 증가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5% 증가

- 2011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함.
  - 보건, 교육, 주류·담배 등에 대한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0.9% 증가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9 | 2010 | | | | | 2011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소 득 | 1.2 | 5.8 | 7.4 | 7.6 | 6.1 | 2.4 | 3.5 | 4.7 |
| (경상소득) | 1.2 | 6.0 | 7.2 | 7.5 | 6.3 | 3.2 | 4.5 | 4.7 |
| (비경상소득) | 1.1 | 1.8 | 10.3 | 9.1 | -1.2 | -17.2 | -14.0 | 7.3 |
| 소비 지출 | 1.7 | 6.4 | 9.5 | 6.7 | 5.4 | 4.2 | 4.3 | 4.3 |
| (식료품) | -0.2 | 6.5 | 4.5 | 3.5 | 10.0 | 7.8 | 8.4 | 8.9 |
| (의류·신발) | 0.2 | 10.9 | 8.6 | 11.0 | 10.0 | 13.1 | 9.3 | 5.3 |
| (교 통) | 1.5 | 2.0 | 16.9 | 5.4 | -1.1 | -7.7 | 11.5 | 10.8 |
| (교 육) | 6.9 | 2.4 | 4.9 | 1.0 | 2.7 | -0.5 | -3.0 | -2.7 |
| (음식·숙박) | -2.5 | 4.1 | 8.1 | 5.2 | 3.0 | 0.6 | -0.6 | -0.7 |

자료: 통계청

## 4. 물가

- 2011년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22.2로 전분기 대비 1.4% 상승, 전년 동기대비 4.8% 상승함.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4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상승함.
  - 상품은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5.3% 상승하였음.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3.6%, 전년 동월대비 1.7% 각각 하락함.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7.6% 각각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대비로는 3.0% 각각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 | 2010 | | | | | 2011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 지 수 | 116.1 | 114.6 | 115.6 | 116.6 | 117.6 | 119.7 | 120.5 | 122.2 |
| | (2.9) | (2.7) | (2.6) | (2.9) | (3.6) | (4.5) | (4.2) | (4.8) |
| 상품 | 118.8 | 116.2 | 117.9 | 119.7 | 121.5 | 125 | 125.4 | 128.6 |
| | (4.6) | (3.8) | (3.8) | (4.7) | (6.2) | (7.6) | (6.4) | (7.4) |
| 농축수산물 | 119.8 | 113.1 | 116.5 | 122.3 | 127.3 | 131.9 | 125.9 | 132.9 |
| | (10.0) | (3.6) | (5.1) | (12.5) | (19.2) | (16.6) | (8.1) | (8.7) |
| 공업 제품 | 118.5 | 117.1 | 118.3 | 118.9 | 119.8 | 123 | 125.2 | 127.3 |
| | (3.1) | (3.9) | (3.4) | (2.5) | (2.8) | (5.0) | (5.8) | (7.1) |
| 서 비 스 | 114.3 | 113.6 | 114.1 | 114.6 | 115.0 | 116.3 | 117.2 | 118.0 |
| | (1.8) | (2.0) | (1.9) | (1.8) | (1.9) | (2.4) | (2.7) | (3.0) |
| 집 세 | 108.1 | 107.2 | 107.8 | 108.4 | 109.1 | 110.2 | 111.9 | 113.2 |
| | (1.8) | (1.4) | (1.8) | (2.0) | (2.2) | (2.8) | (3.8) | (4.4) |
| 공공서비스 | 112.7 | 112.5 | 112.4 | 112.9 | 113.1 | 113.6 | 113.5 | 114.3 |
| | (1.2) | (1.7) | (1.3) | (0.9) | (0.9) | (1.0) | (1.0) | (1.2) |
| 개인서비스 | 116.8 | 115.9 | 116.6 | 117.2 | 117.5 | 119.2 | 120.6 | 121.1 |
| | (2.2) | (2.3) | (2.0) | (2.2) | (2.2) | (2.8) | (3.4) | (3.3) |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 | 2010 | | | 2011 | | |
|---|---|---|---|---|---|---|
| | 8월 | 9월 | 10월 | 8월 | 9월 | 10월 |
| 총 지 수 | 116.3 | 117.6 | 117.8 | 122.5 | 122.6 | 122.4 |
| 상 품 | 119.0 | 121.8 | 122.1 | 129.1 | 129.6 | 128.6 |
| 농축수산물 | 119.1 | 132.0 | 132.3 | 134.9 | 135.0 | 130.1 |
| 공업 제품 | 118.9 | 118.9 | 119.2 | 127.4 | 128.1 | 128.2 |
| 서 비 스 | 114.6 | 114.9 | 115.0 | 118.1 | 118.1 | 118.4 |
| 집 세 | 108.4 | 108.6 | 108.8 | 113.2 | 113.7 | 114.1 |
| 공공서비스 | 112.8 | 113.6 | 113.6 | 114.4 | 114.3 | 114.9 |
| 개인서비스 | 117.3 | 117.3 | 117.4 | 121.3 | 121.1 | 121.2 |

자료: 통계청

- 2011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2.7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함.

-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9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함.

- 10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19.8로 채소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축산물, 과실 등도 하락하여 전월대비 5.2% 하락함.

- 10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6.3으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반영되어 1차금속제품, 화학제품은 내렸으나, 섬유제품,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함.

  - 서비스는 운수,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 | 2010 | | | | | 2011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 지 수 | 115.1<br>(3.8) | 113.1<br>(2.6) | 114.9<br>(4.2) | 115.5<br>(3.6) | 117.0<br>(5.0) | 120.7<br>(6.7) | 122.2<br>(6.4) | 122.7<br>(6.2) |
| 농림수산품 | 120.0<br>(9.0) | 115.5<br>(0.3) | 116.8<br>(2.2) | 121.9<br>(11.7) | 125.8<br>(23.7) | 139.8<br>(21.0) | 124.6<br>(6.7) | 128.1<br>(5.1) |
| 광 산 품 | 140.8<br>(11.4) | 141.1<br>(16.1) | 140.5<br>(13.9) | 141<br>(12.6) | 140.6<br>(3.8) | 141.2<br>(0.1) | 141.8<br>(0.9) | 143.3<br>(1.6) |
| 공 산 품 | 115.9<br>(4.3) | 113.5<br>(2.8) | 115.9<br>(5.1) | 116.3<br>(3.9) | 118.0<br>(5.3) | 122.5<br>(7.9) | 125.4<br>(8.2) | 125.7<br>(8.1) |
| 전력/수도/가스 | 128.7<br>(4.1) | 127.5<br>(6.0) | 127.7<br>(6.4) | 129.6<br>(2.1) | 130.1<br>(2.1) | 131.7<br>(3.3) | 133.6<br>(4.6) | 137.0<br>(5.7) |
| 서 비 스 | 109.8<br>(1.7) | 109.2<br>(1.9) | 109.6<br>(1.6) | 109.9<br>(1.3) | 110.4<br>(1.8) | 111.3<br>(1.9) | 112<br>(2.2) | 112.0<br>(1.9) |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 | 2010 | | | 2011 | | |
|---|---|---|---|---|---|---|
| | 8월 | 9월 | 10월 | 8월 | 9월 | 10월 |
| 총 지 수 | 115.2 | 116.3 | 116.4 | 122.8 | 122.9 | 122.9 |
| 농림수산품 | 117.3 | 136.1 | 126.5 | 132.0 | 126.4 | 119.8 |
| 광 산 품 | 140.9 | 140.7 | 140.5 | 143.4 | 143.7 | 144.1 |
| 공 산 품 | 116.2 | 116.5 | 117.0 | 125.5 | 126.1 | 126.3 |
| 전력/수도/가스 | 129.4 | 131.6 | 131.9 | 138.0 | 138.2 | 141.7 |
| 서 비 스 | 109.9 | 109.9 | 110.3 | 112.0 | 111.7 | 112.0 |

자료: 한국은행

- 2011년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0.2로 전분기 대비 0.3%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함.

- 9월 수출물가지수는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전월대비 3.4% 상승, 전년 동월대비 5.8% 상승한 113.1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대비 9.6% 상승함.

- 9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80.7로 전월대비 6.9% 상승, 전년 동월대비 22.7% 상승함.

-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2.7로 석유화학·고무제품, 운송장비제품, 컴퓨터·영상음향 등 대부분의 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3.4% 상승함.

【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 | 2010 | | | | | 2011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 지 수 | 106.4 | 104.0 | 106.8 | 107.9 | 107.0 | 110.9 | 110.5 | 110.2 |
| | (-2.6) | (-9.8) | (-1.6) | (-0.6) | (2.4) | (6.6) | (3.4) | (2.1) |
| 농림수산품 | 137.7 | 124.4 | 140.1 | 144.4 | 141.8 | 149.8 | 155.8 | 166.7 |
| | (8.3) | (-0.3) | (14.1) | (4.9) | (14.7) | (20.4) | (11.2) | (15.4) |
| 공 산 품 | 106.3 | 103.9 | 106.6 | 107.7 | 106.8 | 110.7 | 110.2 | 109.9 |
| | (-2.6) | (-9.9) | (-1.7) | (-0.6) | (2.3) | (6.5) | (3.4) | (2.0) |
| 원 자 재 | 148.3 | 132.9 | 151.7 | 157.4 | 151.3 | 159.8 | 165.6 | 175.7 |
| | (10.3) | (-0.8) | (16.8) | (11.0) | (14.5) | (20.2) | (9.2) | (11.6) |
| 자 본 재 | 106.9 | 107.2 | 107.1 | 108.9 | 104.5 | 103.6 | 102.0 | 102.1 |
| | (-11.7) | (-17.9) | (-12.3) | (-8.3) | (-7.2) | (-3.3) | (-4.8) | (-6.2) |
| 소 비 재 | 87.1 | 86.8 | 87.6 | 88.8 | 85.1 | 84.9 | 83.4 | 83.7 |
| | (-11.5) | (-19.1) | (-12.0) | (-7.9) | (-6.1) | (-2.2) | (-4.8) | (-5.8) |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 | 2010 | | | 2011 | | |
|---|---|---|---|---|---|---|
| | 7월 | 8월 | 9월 | 7월 | 8월 | 9월 |
| 총 지 수 | 109.4 | 107.4 | 106.9 | 108.0 | 109.4 | 113.1 |
| 농림수산품 | 146.6 | 139.4 | 147.2 | 150.2 | 169.1 | 180.7 |
| 공 산 품 | 109.2 | 107.2 | 106.7 | 107.8 | 109.1 | 112.7 |
| 원 자 재 | 162.1 | 154.8 | 155.4 | 163.6 | 176.6 | 186.9 |
| 자 본 재 | 110.8 | 108.5 | 107.2 | 100.0 | 101.4 | 105.0 |
| 소 비 재 | 90.6 | 88.4 | 87.4 | 81.8 | 83.0 | 86.3 |

자료: 한국은행

- 2011년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3.8로 전분기 대비 0.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1.3% 상승함.

- 9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전월대비 3.7% 상승, 전년 동월대비 14.0% 상승한 168.1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 18.2% 상승함.
  - 원자재의 경우, 쇠고기 등 농림수산품이 증가하고 원유를 중심으로 광산품도 올라 전월대비 4.1% 상승함.

- 9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201.9로 전월대비 2.6% 상승, 전년 동월대비 15.9% 상승함.

【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 | 2010 | | | | | 2011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총 지 수 | 145.0 | 137.9 | 144.4 | 147.2 | 150.5 | 161.2 | 164.9 | 163.8 |
| | (5.3) | (3.2) | (8.1) | (7.0) | (9.7) | (16.9) | (14.2) | (11.3) |
| 농림수산품 | 171.0 | 157.6 | 164.5 | 174.6 | 187.3 | 208.7 | 204.1 | 196.8 |
| | (9.2) | (0.5) | (5.0) | (14.0) | (22.6) | (32.5) | (24.0) | (12.7) |
| 공 산 품 | 129.2 | 124.9 | 128.6 | 130.7 | 132.4 | 136.8 | 135.7 | 135.2 |
| | (-0.1) | (-1.0) | (1.9) | (2.3) | (6.2) | (9.5) | (5.5) | (3.4) |
| 원 자 재 | 185.8 | 171.2 | 185.1 | 189.7 | 197.3 | 224.2 | 240.5 | 238.0 |
| | (16.7) | (12.5) | (21.6) | (16.5) | (16.2) | (30.9) | (29.9) | (25.5) |
| 자 본 재 | 117.9 | 116.5 | 116.5 | 120.9 | 117.6 | 116.6 | 114.4 | 115.2 |
| | (-8.8) | (-9.3) | (-9.3) | (-3.8) | (-2.0) | (0.1) | (-1.8) | (-4.7) |
| 소 비 재 | 126.3 | 124.4 | 126.3 | 127.6 | 127.0 | 128.0 | 127.3 | 126.6 |
| | (-3.2) | (-4.3) | (-2.9) | (-0.8) | (1.6) | (2.9) | (0.8) | (-0.8) |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 | 2010 | | | 2011 | | |
|---|---|---|---|---|---|---|
| | 7월 | 8월 | 9월 | 7월 | 8월 | 9월 |
| 총 지 수 | 147.0 | 147.4 | 147.4 | 161.4 | 162.1 | 168.1 |
| 농림수산품 | 170.2 | 175.1 | 178.4 | 192.3 | 196.1 | 201.9 |
| 공 산 품 | 131.3 | 130.4 | 130.5 | 132.7 | 134.2 | 138.8 |
| 원 자 재 | 187.0 | 191.0 | 191.0 | 235.8 | 234.4 | 243.9 |
| 자 본 재 | 122.2 | 120.6 | 119.9 | 112.2 | 114.7 | 118.6 |
| 소 비 재 | 129.3 | 126.7 | 126.8 | 124.1 | 125.9 | 129.7 |

자료: 한국은행

## 5. 금융·환율

- 2011년 2/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함.

- 2011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3.8%에서 5.4%로 상승함.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3.7% → 5.6%)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2011년 8월중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기업부분 등에 대한 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여 전월 3.2%에서 4.0%로 상승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4.6%에서 5.5%로 상승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2009 | 2010 | | | | | 2011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2/4 |
| M1[1] | 16.3 | 11.8 | 14.5 | 10.7 | 10.8 | 11.3 | 11.9 | 7.4 |
| M2[2] | 10.3 | 8.7 | 9.4 | 9.5 | 8.6 | 7.4 | 5.2 | 3.5 |
| Lf[3] | 7.9 | 8.2 | 8.5 | 9.1 | 8.2 | 7.1 | 5.5 | 4.3 |
| 본원통화[4] | 18.1 | 9.5 | 2.3 | 9.6 | 13.9 | 12.5 | 12.5 | 11.8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1년 9월 들어 국고채(3년)금리는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의 재부각과 미국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임.(9.14일 3.31%)
  - 그러나,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확산,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9월말 3.55%)하였으나, 10월 들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임.(10.11일 3.48%)

- CD(91일)금리는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는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 리 동 향 】**

단위: %

| | 2010 | 2011 | | | | | | | |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국고채(3년) | 3.25 | 3.71 | 3.94 | 3.74 | 3.74 | 3.66 | 3.65 | 3.77 | 3.57 | 3.45 |
| 콜 금 리[1] | 2.50 | 2.66 | 2.75 | 2.92 | 3.01 | 3.02 | 3.20 | 3.26 | 3.25 | 3.25 |
| CD유통수익률(91일) | 2.80 | 2.93 | 3.13 | 3.35 | 3.40 | 3.46 | 3.53 | 3.59 | 3.59 | 3.58 |
| 회 사 채[2] | 4.17 | 4.52 | 4.72 | 4.54 | 4.54 | 4.44 | 4.40 | 4.48 | 4.29 | 4.24 |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9월말 원/달러 환율은 1,179원으로 전분기말(6월말) 종가(1,068원)대비 111원 상승함.
  -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프랑스·이탈리아 등으로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한 유로존 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8월말 대비 급등함.

- 9월말 원/100엔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8월말 대비 142원 상승한 1,534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단위: 원

| | 2010 | | | 2011 | | |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원/달러 | 1,125 | 1,160 | 1,120 | 1,122 | 1,128 | 1,097 | 1,069 | 1,079 | 1,068 | 1,054 | 1,066 | 1,179 |
| 원/100엔 | 1,393 | 1,380 | 1,376 | 1,366 | 1,379 | 1,324 | 1,312 | 1,322 | 1,328 | 1,358 | 1,392 | 1,534 |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 Ⅱ. 농촌경제 동향[2)]

## 1. 농산물 물가지수

###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1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0.8로 전년 동기보다 5.3% 상승하였으며, 2011년 2/4분기보다는 2.4% 상승함.
  - 식료품 중 특히 곡물류가 전년 동기대비 22.0%로 크게 상승하였고, 축산물 9.1%, 과실채소가공품 9.3% 등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함.
  - 농업용품인 비료는 전년 동기대비 9.1%, 농약은 0.9% 하락한 반면에 사료는 14.1%, 농업용 기계는 7.0% 상승함.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식료품 | 120.7 | 124.2 | 127.7 | 130.8 | 5.3 | 2.4 |
| 식료품(이외) | 114.3 | 114.7 | 121.7 | 122.0 | 6.4 | 0.2 |
| 곡물 | 84.9 | 83.8 | 102.3 | 102.2 | 22.0 | -0.1 |
| 채소 | 147.0 | 185.9 | 124.8 | 170.1 | -8.5 | 36.3 |
| 과실 | 111.6 | 122.4 | 132.2 | 117.9 | -3.7 | -10.8 |
| 축산물 | 117.1 | 115.4 | 134.9 | 125.9 | 9.1 | -6.7 |
| 육가공품 | 159.9 | 158.1 | 167.0 | 166.0 | 5.0 | -0.6 |
| 과실채소가공품 | 122.1 | 129.0 | 138.9 | 141.0 | 9.3 | 1.5 |
| 낙농품 | 126.9 | 127.7 | 129.4 | 129.9 | 1.7 | 0.4 |
| 사료 | 170.1 | 175.0 | 194.2 | 199.6 | 14.1 | 2.8 |
| 비료 | 177.8 | 177.8 | 161.0 | 161.7 | -9.1 | 0.4 |
| 농약 | 124.6 | 124.6 | 123.5 | 123.5 | -0.9 | 0.0 |
| 농업용기계 | 122.6 | 123.5 | 129.6 | 132.2 | 7.0 | 2.0 |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조우림(urimcho@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1.4%, 농축수산물은 전분기 대비 5.6% 상승함.

- 농산물의 경우, 모든 품목이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8.9%, 축산물은 전분기 대비 1.0% 상승함.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소비자물가지수 | 115.6 | 116.6 | 120.5 | 122.2 | 4.8 | 1.4 |
| 농축수산물 | 116.5 | 122.3 | 125.9 | 132.9 | 8.7 | 5.6 |
| 농산물 | 112.0 | 120.3 | 119.4 | 130.0 | 8.1 | 8.9 |
| 곡물 | 94.3 | 94.1 | 105.9 | 106.7 | 13.4 | 0.8 |
| 채소 | 140.3 | 157.2 | 121.9 | 155.0 | -1.4 | 27.2 |
| 과실 | 102.6 | 110.4 | 119.5 | 119.9 | 8.6 | 0.3 |
| 기타농산물 | 116.6 | 127.8 | 144.7 | 156.0 | 22.1 | 7.8 |
| 축산물 | 118.4 | 121.3 | 131.3 | 132.6 | 9.3 | 1.0 |
| 수산물 | 132.4 | 132.2 | 144.5 | 145.3 | 9.9 | 0.6 |

자료: 통계청

##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1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마늘(난지), 참깨, 국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05년=100)】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쌀 | 84.5 | 82.6 | 99.7 | 99.9 | 21.0 | 0.2 |
| 보리(과맥) | 103.5 | 110.2 | 108.5 | 116.7 | 5.9 | 7.5 |
| 배추 | 193.2 | 246.5 | 92.6 | 171.9 | -30.2 | 85.7 |
| 무 | 158.1 | 238.1 | 106.2 | 190.2 | -20.1 | 79.1 |
| 고추(화건) | 114.0 | 118.1 | 180.3 | 245.4 | 107.8 | 36.1 |
| 마늘(난지) | 148.6 | 260.1 | 224.1 | 169.6 | -34.8 | -24.3 |
| 양파 | 179.2 | 150.3 | 96.7 | 127.0 | -15.5 | 31.3 |
| 사과(후지) | 76.4 | 77.2 | 111.5 | 113.6 | 47.1 | 1.9 |
| 배(신고) | 97.2 | 95.6 | 147.2 | 195.3 | 104.4 | 32.7 |
| 느타리 | 105.7 | 120.9 | 104.6 | 129.9 | 7.4 | 24.1 |
| 참깨 | 116.3 | 115.4 | 136.1 | 130.6 | 13.2 | -4.0 |
| 국화 | 159.1 | 124.4 | 121.6 | 88.1 | -29.2 | -27.5 |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 2011년 3/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1.0%, 보리는 5.9% 상승함.

- 2011년 3/4분기 채소 가격 중 건고추(화건)의 경우, 탄저병 확산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하여 크게 상승함.

- 2011년 3/4분기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하여 크게 상승함. 이는 7~8월 잦은 강우로 인해 작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3)]

- 10월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29.6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9월보다 3.8% 하락함.
  - 무, 배추, 오이, 토마토 등 대부분의 품목의 생활물가지수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쇠고기(국산), 양파, 마늘은 하락하였음.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주요품목 생활물가지수(2005년=100)】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쌀 | 92.2 | 91.2 | 102.1 | 103.2 | 13.16 | 1.08 |
| 쇠고기(국산) | 130.3 | 128.9 | 110.7 | 109.6 | -14.97 | -0.99 |
| 돼지고기 | 114.5 | 122.5 | 154.0 | 160.4 | 30.94 | 4.16 |
| 사과 | 88.5 | 89.7 | 104.1 | 104.7 | 16.72 | 0.58 |
| 무 | 144.9 | 202.8 | 122.7 | 201.4 | -0.69 | 64.14 |
| 배추 | 181.7 | 204.0 | 111.3 | 182.1 | -10.74 | 63.61 |
| 파 | 163.0 | 196.6 | 125.4 | 127.8 | -34.99 | 1.91 |
| 양파 | 161.9 | 125.6 | 116.8 | 113.7 | -9.47 | -2.65 |
| 오이 | 126.4 | 165.8 | 117.4 | 142.3 | -14.17 | 21.21 |
| 토마토 | 130.9 | 122.6 | 121.7 | 141.2 | 15.17 | 16.02 |
| 마늘 | 126.5 | 189.6 | 200.8 | 183.7 | -3.11 | -8.52 |

자료: 통계청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3/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40.4로 전분기 대비 8.3%,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함.
  - 신선채소는 무, 배추, 양배추 등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27.2% 상승함.
  - 신선과실은 사과, 배 등이 소폭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0.3% 상승함.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신선식품 | 123.9 | 134.6 | 129.6 | 140.4 | 4.3 | 8.3 |
| 신선어개 | 134.9 | 134.1 | 147.7 | 148.0 | 10.4 | 0.2 |
| 신선채소 | 140.3 | 157.2 | 121.9 | 155.0 | -1.4 | 27.2 |
| 무 | 144.9 | 202.8 | 122.7 | 201.4 | -0.7 | 64.1 |
| 배추 | 181.7 | 204.0 | 111.3 | 182.1 | -10.7 | 63.6 |
| 양배추 | 142.7 | 164.1 | 114.7 | 147.8 | -9.9 | 28.9 |
| 오이 | 126.4 | 165.8 | 117.4 | 142.3 | -14.2 | 21.2 |
| 토마토 | 130.9 | 122.6 | 121.7 | 141.2 | 15.2 | 16.0 |
| 버섯 | 101.7 | 111.3 | 105.7 | 115.9 | 4.1 | 9.6 |
| 신선과실 | 102.6 | 110.4 | 119.5 | 119.9 | 8.6 | 0.3 |
| 사과 | 88.5 | 89.7 | 104.1 | 104.7 | 16.7 | 0.6 |
| 배 | 98.6 | 108.5 | 126.0 | 126.9 | 17.0 | 0.7 |
| 귤 | 83.3 | 83.3 | 99.4 | 99.4 | 19.3 | 0.0 |
| 기타신선 | 127.5 | 184.2 | 189.5 | 174.2 | -5.4 | -8.1 |

자료: 통계청

## 1.6. 장바구니 물가지수[4)]

- 2011년 3/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쇠고기(국산), 닭고기, 양파, 마늘 등을 제외한 5개 품목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냄.
  - 닭고기는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채소류 중 배추는 7~8월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63.6% 상승하였음.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 | 2010 | | 2011 | | 등락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 비 |
| 쌀 | 92.2 | 91.2 | 102.1 | 103.2 | 13.2% | 1.1% |
| 쇠고기(국산) | 130.3 | 128.9 | 110.7 | 109.6 | -15.0% | -1.0% |
| 돼지고기 | 114.5 | 122.5 | 154.0 | 160.4 | 30.9% | 4.2% |
| 닭고기 | 135.0 | 134.7 | 144.4 | 138.5 | 2.8% | -4.1% |
| 사과 | 88.5 | 89.7 | 104.1 | 104.7 | 16.7% | 0.6% |
| 배추 | 181.7 | 204.0 | 111.3 | 182.1 | -10.7% | 63.6% |
| 양파 | 161.9 | 125.6 | 116.8 | 113.7 | -9.5% | -2.7% |
| 토마토 | 130.9 | 122.6 | 121.7 | 141.2 | 15.2% | 16.0% |
| 마늘 | 126.5 | 189.6 | 200.8 | 183.7 | -3.1% | -8.5% |
| 평균물가 | 129.1 | 134.3 | 129.5 | 137.5 | 2.3% | 6.1% |

자료: 통계청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1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4분기보다 1.8%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보다는 2.9%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 대비 0.9% 감소한 927천명이었고, 여성은 3.2% 감소한 776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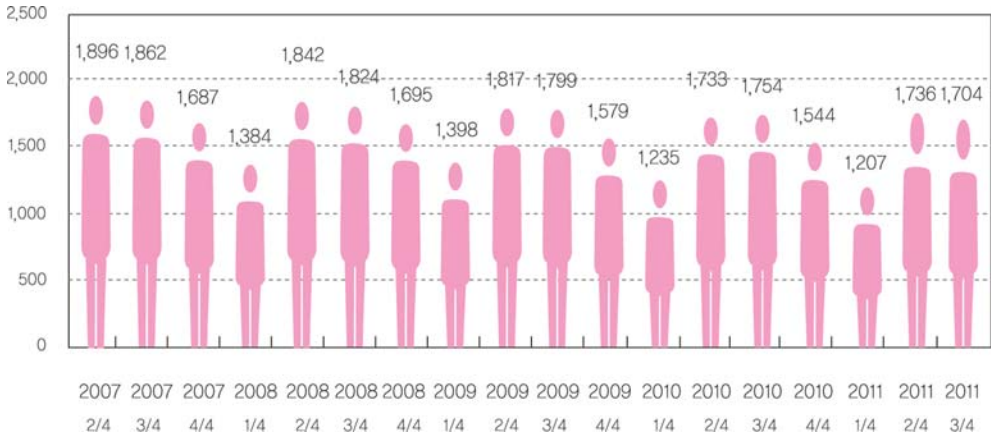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 | | 2010 | | 2011 | | 증감률 |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취업자 | 전산업 | 24,170 | 24,120 | 24,572 | 24,483 | 1.5% | -0.4% |
| | 농림어업 | 1,733 | 1,754 | 1,736 | 1,704 | -2.9% | -1.8% |
| | 남성 | 943 | 968 | 935 | 927 | -4.2% | -0.9% |
| | 여성 | 790 | 787 | 802 | 776 | -1.4% | -3.2% |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1년 3/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전기 대비 45.8%나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21.1% 감소하였음.
  - 일시휴직자는 25천명으로 47.1% 증가했고, 주당 평균시간은 36.3시간으로 전기 대비 14.0% 감소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 | 2010 | | 2011 | | 증감률 | |
|---|---|---|---|---|---|---|
| | 2/4분기 | 3/4분기 | 2/4분기 | 3/4분기 | 전년 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
| 전체 | 1733 | 1,754 | 1736 | 1,704 | -2.9% | -1.8% |
| 1~17시간 | 106 | 110 | 107 | 156 | 41.8% | 45.8% |
| 18~35시간 | 358 | 382 | 367 | 540 | 41.4% | 47.1% |
| 36시간 이상 | 1252 | 1,243 | 1245 | 982 | -21.0% | -21.1% |
| 일시 휴직 | 17 | 19 | 17 | 25 | 31.6% | 47.1% |
| 주당 평균시간 | 42.5 | 41 | 42.2 | 36.3 | -12.1% | -14.0% |

자료: 통계청

#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3.1. 수출동향

- 2011년 1~9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총 52.9억 달러임.

-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3,294백만 달러로 토마토, 유자차 등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함.

- 축산물은 난류, 녹용, 한약재(축산물)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조류, 쇠고기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7.6%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가자미, 송어, 문어 등은 감소한 반면, 뱀장어, 가오리, 홍어, 게, 청어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1.0%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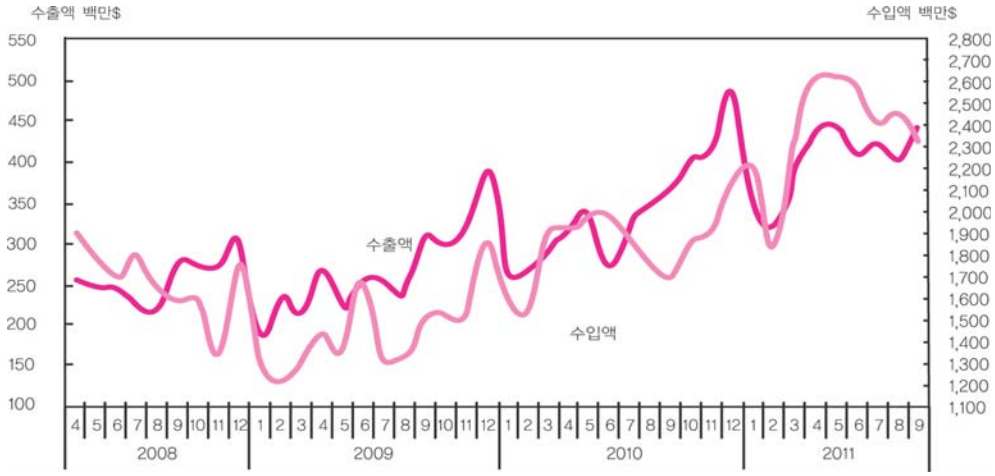
단위: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663 | 2,785 | 1,932 | 3,621 | 16.2 | 30.0 |
| 농 산 물 | 1,492 | 2,537 | 1,750 | 3,294 | 17.3 | 29.9 |
| 축 산 물 | 40 | 97 | 46 | 124 | 13.9 | 27.6 |
| 임 산 물 | 130 | 150 | 136 | 203 | 4.1 | 35.0 |
| 수 산 물 | 465 | 1,272 | 513 | 1,666 | 10.2 | 31.0 |
| 전 체 | 2,128 | 4,057 | 2,444 | 5,288 | 14.9 | 30.3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연말 수출이 집중되는 신선농산물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2011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20.8%, 전월 대비 10.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37.6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5.3%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




## 3.2. 수입동향

- 2011년 1~9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총 21,51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함. 농산물은 보리, 호밀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2.1%, 축산물은 오리고기, 연유, 치즈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73.2%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31,676 | 16,385 | 31,926 | 21,519 | 0.8 | 31.3 |
| 농 산 물 | 21,345 | 10,211 | 21,812 | 13,492 | 2.2 | 32.1 |
| 축 산 물 | 774 | 2,235 | 1,101 | 3,870 | 42.3 | 73.2 |
| 임 산 물 | 9,557 | 3,940 | 9,013 | 4,156 | -5.7 | 5.5 |
| 수 산 물 | 3,358 | 2,440 | 3,537 | 3,062 | 5.4 | 25.5 |
| 전 체 | 35,034 | 18,825 | 35,463 | 24,581 | 1.2 | 30.6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3.3. 국가별 수출입동향

### 가. 대중국 농축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9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8억 3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8%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263 | 382 | 294 | 509 | 11.6 | 33.2 |
| 농 산 물 | 188 | 306 | 252 | 438 | 33.7 | 43.2 |
| 축 산 물 | 2 | 14 | 4 | 27 | 118.7 | 100.3 |
| 임 산 물 | 73 | 63 | 38 | 44 | -48.3 | -30.0 |
| 수 산 물 | 69 | 146 | 109 | 324 | 59.0 | 125.0 |
| 합 계 | 332 | 528 | 403 | 833 | 21.4 | 57.8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액 측면에서 화훼류와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한 가운데 곡류 44.9%, 낙농품 99.5%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

단위: 천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곡류 | 1,320 | 1,376 | 1,655 | 1,994 | 25.4 | 44.9 |
| 과실류 | 16,973 | 19,775 | 18,498 | 26,668 | 9.0 | 34.9 |
| 채소류 | 642 | 4,381 | 612 | 4,425 | -4.7 | 1.0 |
| 화훼류 | 1,679 | 10,399 | 843 | 5,584 | -49.8 | -46.3 |
| 버섯류 | 3,795 | 4,404 | 1,520 | 2,525 | -60.0 | -42.7 |
| 낙농품 | 1,074 | 8,821 | 1,928 | 17,598 | 79.5 | 99.5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9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4,204 | 2,291 | 4,477 | 2,805 | 6.5 | 22.5 |
| 농 산 물 | 2,024 | 1,343 | 2,412 | 1,692 | 19.2 | 26.0 |
| 축 산 물 | 13 | 37 | 16 | 46 | 23.9 | 22.3 |
| 임 산 물 | 2,167 | 910 | 2,049 | 1,067 | -5.5 | 17.3 |
| 수 산 물 | 697 | 773 | 830 | 914 | 19.2 | 18.3 |
| 합 계 | 4,900 | 3,063 | 5,307 | 3,719 | 8.3 | 21.4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9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96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9% 증가함.
  - 과실류는 유자, 복숭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7.3% 증가함.
  - 채소류 중 양배추, 마늘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토마토, 호박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함.
  - 화훼류는 장미, 국화, 선인장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471,528 | 702,756 | 676,958 | 962,256 | 43.6 | 36.9 |
| 곡류 | 6,969 | 5,411 | 7,933 | 7,557 | 13.8 | 39.7 |
| 과실류 | 6,442 | 11,972 | 7,462 | 17,634 | 15.8 | 47.3 |
| 채소류 | 37,083 | 123,041 | 34,841 | 137,620 | -6.1 | 11.9 |
| 화훼류 | 5,695 | 50,137 | 4,896 | 46,708 | -14.0 | -6.8 |
| 버섯류 | 386 | 1,051 | 547 | 1,761 | 41.7 | 67.6 |
| 낙농품 | 1,655 | 6,060 | 1,129 | 4,554 | -31.7 | -24.9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9월중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함. 특히, 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53,319 | 321,485 | 135,854 | 335,750 | -11.4 | 4.4 |
| 농 산 물 | 79,596 | 248,546 | 66,917 | 273,145 | -15.9 | 9.9 |
| 축 산 물 | 1,011 | 10,072 | 1,520 | 13,011 | 50.2 | 29.2 |
| 임 산 물 | 72,711 | 62,867 | 67,418 | 49,594 | -7.3 | -21.1 |
| 수 산 물 | 61,994 | 153,093 | 44,303 | 136,935 | -28.5 | -10.6 |
| 합 계 | 215,313 | 474,579 | 180,157 | 472,685 | -16.3 | -0.4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9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2억 8천 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함. 이는 난초, 선인장을 중심으로 하는 화훼류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과실류는 유자, 사과, 복숭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함.
  - 채소류 중 호박, 딸기 등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마늘, 토마토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5.4% 감소함.
  -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16,175 | 253,743 | 122,090 | 286,174 | 5.1 | 12.8 |
| 곡류 | 3,607 | 4,777 | 4,254 | 6,026 | 17.9 | 26.1 |
| 과실류 | 8,835 | 12,779 | 8,638 | 14,782 | -2.2 | 15.7 |
| 채소류 | 7,927 | 15,941 | 3,051 | 11,894 | -61.5 | -25.4 |
| 화훼류 | 88 | 1,012 | 118 | 1,549 | 34.8 | 53.0 |
| 버섯류 | 2,268 | 3,953 | 1.737 | 3,393 | -23.4 | -14.2 |
| 낙농품 | 3,046 | 2,900 | 3,141 | 3,306 | 3.1 | 14.0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9월중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10.5%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2.3% 증가함. 특히,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10,199,187 | 4,399,769 | 9,132,553 | 5,820,182 | -10.5 | 32.3 |
| 농 산 물 | 9,243,462 | 3,326,415 | 8,044,568 | 4,014,397 | -13.0 | 20.7 |
| 축 산 물 | 251,176 | 651,543 | 414,979 | 1,331,181 | 65.2 | 104.3 |
| 임 산 물 | 704,548 | 421,811 | 673,006 | 474,605 | -4.5 | 12.5 |
| 수 산 물 | 35,724 | 90,151 | 40,724 | 115,550 | 14.0 | 28.2 |
| 합 계 | 10,234,911 | 4,489,921 | 9,173,277 | 5,935,732 | -10.4 | 32.2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라.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9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은 1억 7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함.
  - 과실류는 배, 과즙음료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63.4% 증가함.
  - 채소류 중 김치, 고추, 채소종자 등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무, 마늘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7.0% 감소
  - 화훼류는 국화, 선인장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7.1% 감소함.

【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88,957 | 148,117 | 82,963 | 179,097 | -6.7 | 20.9 |
| 곡류 | 417 | 733 | 690 | 1,022 | 65.7 | 39.4 |
| 과실류 | 1,269 | 1,018 | 1,847 | 1,663 | 45.5 | 63.4 |
| 채소류 | 5,934 | 6,939 | 713 | 3,681 | -88.0 | -47.0 |
| 화훼류 | 321 | 1,639 | 123 | 1,195 | -61.6 | -27.1 |
| 버섯류 | 588 | 2,433 | 824 | 3,817 | 40.0 | 56.9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9월 중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9.7% 증가함.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 2010. 1~9 | | 2011. 1~9 | | 증감률 (%)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농림축산물 | 821,684 | 1,298,014 | 920,121 | 1,942,771 | 12.0 | 49.7 |
| 농 산 물 | 503,544 | 802,742 | 475,145 | 955,260 | -5.6 | 19.0 |
| 축 산 물 | 123,160 | 375,329 | 242,608 | 844,131 | 97.0 | 124.9 |
| 임 산 물 | 194,980 | 119,943 | 202,368 | 143,380 | 3.8 | 19.5 |
| 수 산 물 | 15,443 | 59,777 | 15,661 | 78,183 | 1.4 | 30.8 |
| 합 계 | 837,127 | 1,357,790 | 935,782 | 2,020,954 | 11.8 | 48.8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4.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조기경보지수

## 4.1. 국제곡물 가격 동향

- 2011년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곡물 선물 투기가 크게 감소하면서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10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됨.

- 2011년 10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각각 톤당 230달러, 248달러, 446달러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전년 평균가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

| | '08 | '09 | '10 | 2011 | | | | 전년 대비 | 전월 대비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 |
| 밀 | 294 | 195 | 213 | 246 | 264 | 250 | 230 | 8.0 | -8.0 |
| 옥수수 | 208 | 147 | 168 | 269 | 281 | 272 | 248 | 4.8 | -8.8 |
| 대두 | 453 | 378 | 385 | 502 | 501 | 493 | 446 | 15.8 | -9.5 |

주: 회계년도 기준,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 4.2. 국제곡물 수급 전망

-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량이 회복되어 2011/12년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8,120만 톤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6억 7,443만 톤으로 예상됨. 생산량 증가로 2011/12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010/11년 대비 0.1%p 하락한 30.0%로 전망됨.

- 2011/12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8억 6,009만 톤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할 전망임. 이는 옥수수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기상악화에 따른 수확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2011/12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4.2%로 2010/11년 대비 1.2%p 하락할 전망임.

- 아르헨티나와 EU를 제외한 미국, 브라질, 중국 등 주요 대두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1/12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5,860만 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고, 소비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5%p 하락한 24.1%로 전망됨.

**【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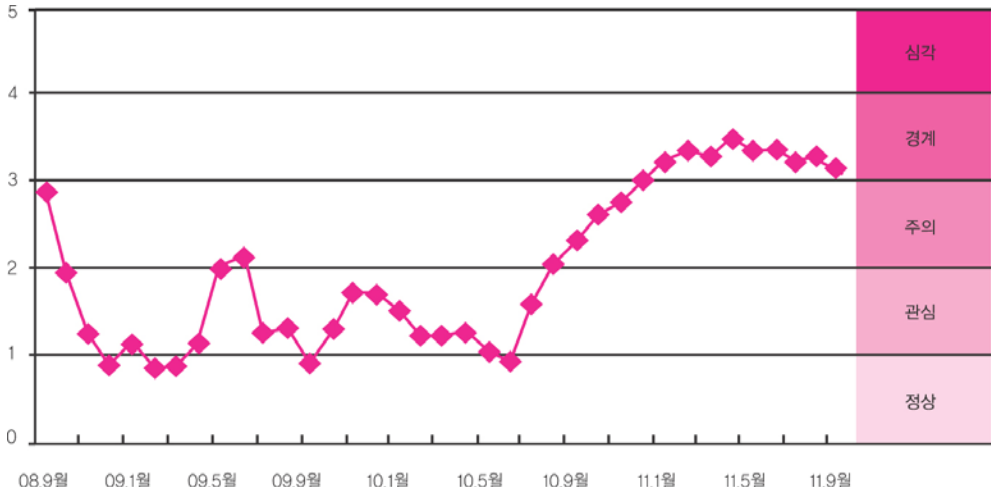
| | | 2009/10 | 2010/11 (추정) | 2011/12 (전망) | 전년대비 (%) |
|---|---|---|---|---|---|
| 밀 | 생산량 | 684.40 | 648.16 | 681.20 | 5.1 |
| | 소비량 | 650.75 | 653.30 | 674.43 | 3.2 |
| | 교역량 | 135.80 | 131.07 | 135.30 | 3.2 |
| | 기말재고량 | 200.75 | 195.60 | 202.37 | 3.5 |
| | 기말재고율(%) | 30.8 | 29.9 | 30.0 | |
| 옥수수 | 생산량 | 819.42 | 828.29 | 860.09 | 3.8 |
| | 소비량 | 822.69 | 842.42 | 866.66 | 2.9 |
| | 교역량 | 96.81 | 89.38 | 94.15 | 5.3 |
| | 기말재고량 | 143.88 | 129.76 | 123.19 | -5.1 |
| | 기말재고율(%) | 17.5 | 15.4 | 14.2 | |
| 대두 | 생산량 | 260.84 | 264.12 | 258.60 | -2.1 |
| | 소비량 | 238.20 | 251.15 | 261.75 | 4.2 |
| | 교역량 | 92.60 | 91.68 | 97.66 | 6.5 |
| | 기말재고량 | 59.38 | 69.26 | 63.01 | -9.0 |
| | 기말재고율(%) | 24.9 | 27.6 | 24.1 | |

자료: USDA, WASDE-499, October 12, 2011.

## 4.3.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5)]

- 국제유가와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하여 2011년 9월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는 3.17로 전월대비 하락함.
  - 조기경보지수: (11.1)3.22→(11.2)3.35→(11.3)3.29→(11.4)3.47→(11.5)3.35→(11.6)3.34→(11.7)3.26→(11.8)3.29→(11.9)3.17

【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




주: 해당월의 지수는 향후 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위험수준을 나타냄.

- 국제유가 및 곡물 선물가격 하락, 밀, 옥수수와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 상향조정, 선물 투기 감소로 모든 설명 변수가 안정신호를 보임에 따라 9월말 기준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전월대비 0.12p 하락

5)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위기 지수를 구성하고, 선행변수들(국제곡물 선물가격, 곡물 재고율, 국제원유 선물가격, 곡물 순매수포지션)을 설정 한 후, 신호접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출된 N/S비율(Noise-Signal Ratio)을 가중치로 사용, 선행변수들을 취합하여 만든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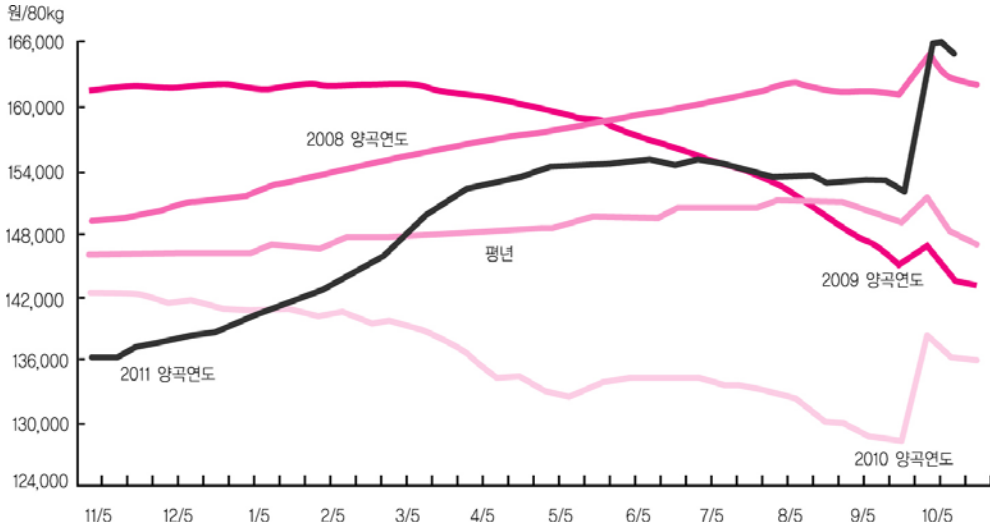
#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 1. 곡물[6)]

### 1.1. 쌀

####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산지 쌀 가격 추이 】




- 2011년 3/4분기 동향
  - 추석 수요와 면적 감소 및 초기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9월 초 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가 늘어나 하락세 전환됨.
  - 9월 벼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산지 쌀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왔으나, 10월 25일 산지 쌀 가격은 16만 4,232원/80kg으로 10월 15일대비 0.2%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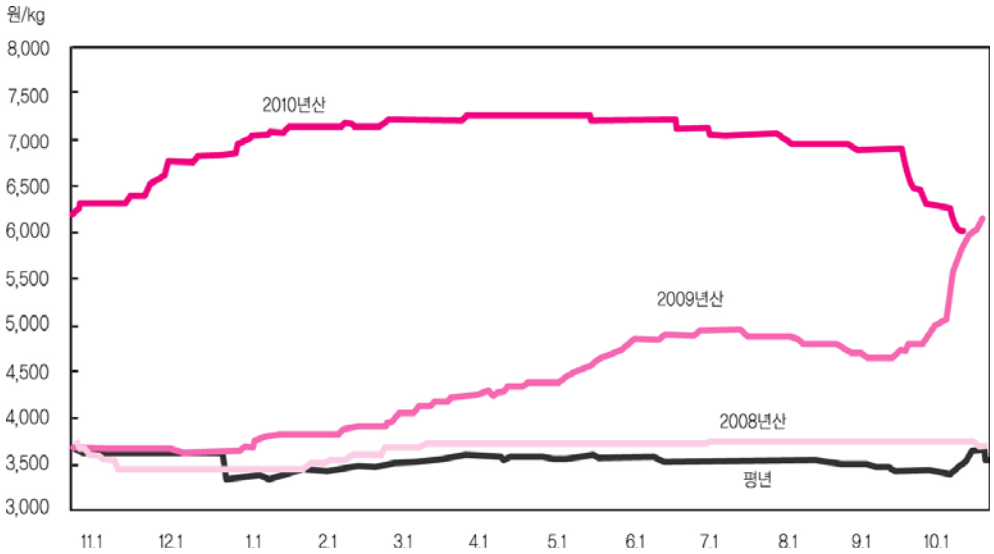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석호 부연구위원(shohan@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 박미성 연구원(mspark@krei.re.kr), 김대석 연구원(sorihunt@krei.re.kr)이 작성하였음.

- 2011년 수확기 전망
  - 9월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어 2011년산 쌀 단수는 평년작 이상으로 예상됨. 9월 말까지의 기상데이터를 적용한 금년 쌀 단수는 501~516kg/10a로 추정됨.
  - 2011년 재배면적 85만 4천 ha에 추정 단수를 적용하면, 2011년산 쌀 생산량은 427만 9천 톤~440만 7천 톤으로 전망됨.

## 1.2. 콩

###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3/4분기 동향
  - 10월(21일까지) 국산콩 도매가격은 6,238원/kg으로 전년대비 15.3%, 평년대비 77.8% 높으나, 전월대비 9.0% 낮은 수준임.
  - 2011양곡년도(2010년 11월~2011년 8월) 8월까지 식용콩 수입량은 26만 5,296톤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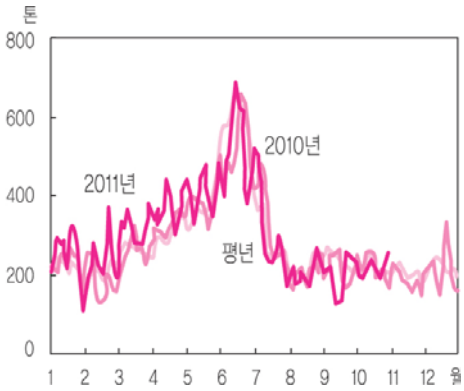
- 2011년 수확기 전망
  - 2011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8.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생육 후기 기상은 양호하였지만 개화기 잦은 강우로 인해 금년 콩 단수는 평년단수(166kg/10a) 이하인 147~166kg/10a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18.1~33.4% 증가한 12만 4천~14만 1천 톤으로 전망
  -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3%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하여 금년 콩나물 콩 생산량은 1만~1만 3천 톤으로 전망

## 1.3. 감 자

###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수미 반입량 추이 】




- 2011년 3/4분기 동향
  - 고랭지감자의 재배면적과 작황 모두 감소하였고 가을감자는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가뭄등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미 10월 27일까지 가락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만 291원으로 전년대비 23.0% 높은 수준임.
  - 11월 강원도 고랭지감자와 육지부 가을감자를 고려한 11월 수미 출하예상량은 전년대비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겨울감자 재배면적 전망
  - 2012년산 겨울감자(대지)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9.4% 감소할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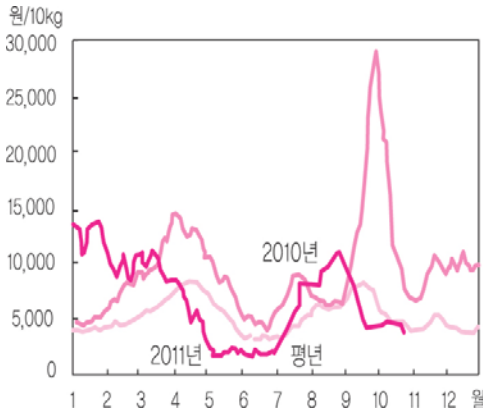
됨.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각각 18.9%, 24.4%로 전년보다 재배의향면적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음.

- 감소 원인으로는 감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좋은 마늘, 브로콜리, 무 등으로 작목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됨.

## 2. 엽근채소[7)]

###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5~2009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증가하나 평년보다 13% 감소하였으며, 단수는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좋으나 지속된 강우로 평년보다는 16% 감소하였음. 고랭지배추 금년 추정 생산량은 17만 4천 톤으로 작년보다 27% 증가하나 평년보다 27% 감소한 수준임.
  - 작년 대비 고랭지배추 생산량 증가로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0% 증가하나, 평년 동기보다는 21% 낮은 수준임.

    * (2011) 7,270원/10kg, (2010) 10,320원/10kg, (평년) 5,993원/10kg

- 2011년 4/4분기 전망
  - 10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1%, 22% 증가한 167만 5천 톤으로 추정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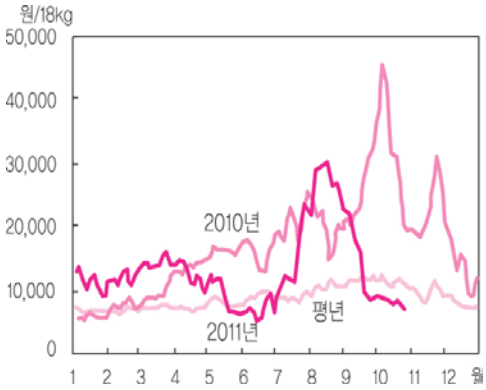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서대석 부연구위원(dssuh@krei.re.kr), 윤형현(aruki00@krei.re.kr), 류상모(lesamang@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통계청에 발표한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금년 정식기 가격이 높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8%, 23% 증가한 17,326ha임.
* 가을배추 단수는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10% 증가하고, 평년과 비슷한 9,669kg/10a로 추정됨.(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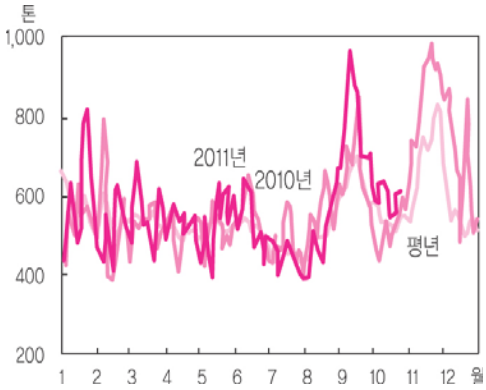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급증에 따른 시장 격리(산지 폐기, 수출, 저장 등)와 한파 등으로 출하량이 전망치보다 적을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정식의향 증가와 정식기 가격 하락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나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호남지역 재배면적은 겨울배추는 11% 감소하나, 가을배추는 34% 증가하였음. 이는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 등의 지역에서 1월 노지 출하와 이후 저장 출하까지 가능한 가을배추 품종의 재배면적을 늘렸기 때문임. 따라서 가을배추 현재 작황 유지 시 내년 1월 이후 출하량도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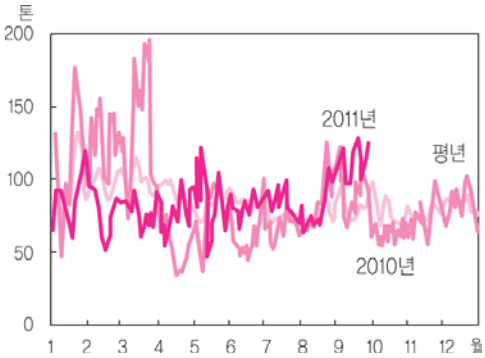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동향
  - 고랭지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9% 감소한 6만 2천톤
    *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하나 가뭄과 강우 피해로 단수가 10% 감소
  - 3/4분기 무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83% 높은 수준
    * (금년) 18,470원/18kg, (작년) 21,870원, (평년) 10,090원

- 2011년 4/4분기 전망
  - 가을무 생산량 작년보다 44%, 평년보다 15% 증가한 67만 9천톤으로 추정됨.
    * 통계청에 발표한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금년 파종기 가격이 높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0%, 21% 증가한 9,148ha임.
    * 가을무 단수는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 5% 감소한 6,966kg/10a로 추정됨.(농업관측센터)
  - 4/4분기 무 도매가격 작년과 평년보다 26%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급증에 따른 시장 격리(산지 폐기, 수출, 저장 등)와 한파 등으로 출하량이 전망치보다 적을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월동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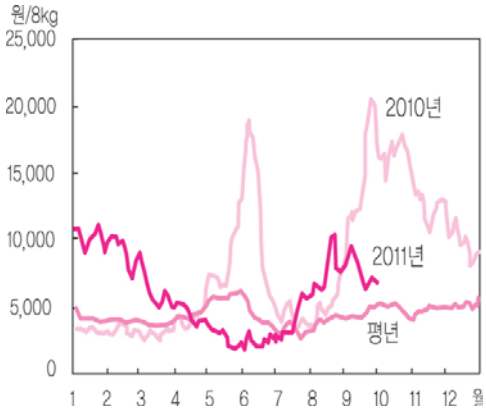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봄당근 저장량 감소와 고랭지당근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4% 증가하고 단수는 30% 감소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감소한 3,300여 톤 수준임.
    * 3/4분기 상품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만 6,97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7%, 66%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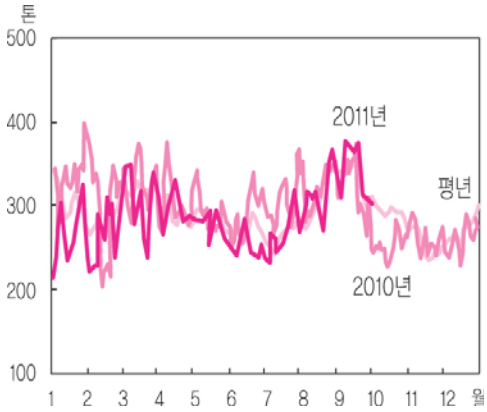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가을·겨울당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각각 2%, 4% 증가하고 작황 역시 양호할 것으로 조사되어 강세를 지속했던 당근가격은 가을당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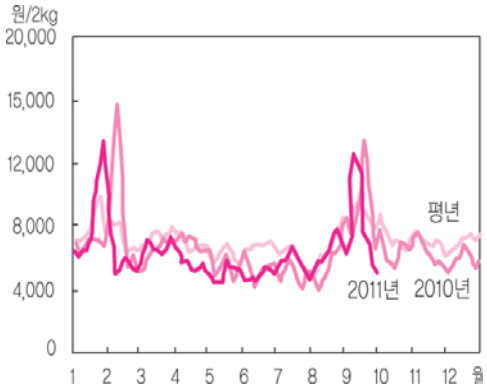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출하가 7월 중순 종료되고 잦은 강우에 의한 고랭지양배추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
    * 고랭지양배추는 재배면적이 7% 증가하고 단수는 1% 감소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증가.
    * 3/4분기 상품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6,230/kg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낮고 평년 동기보다 62%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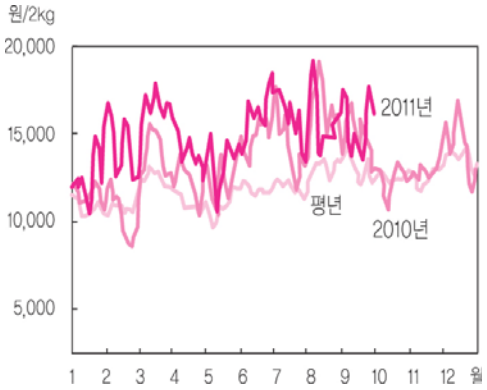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작년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폐작이 많았던 가을양배추의 출하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가을채소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양배추에 대한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4/4분기 양배추 가격은 평년가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전망.

## 2.5. 버섯

【 느타리버섯 도매가격 동향 】




【 양송이버섯 도매가격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느타리 3/4분기 가격은 병재배 생산기반 확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하락함.
  *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6,28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 12% 낮은 수준임.
- 양송이 3/4분기 가격은 경영비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배지 문제로 단수가 감소하여 출하량이 줄어 작년과 평년보다 상승함.
  *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15,33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 20% 상승함.

● 2011년 4/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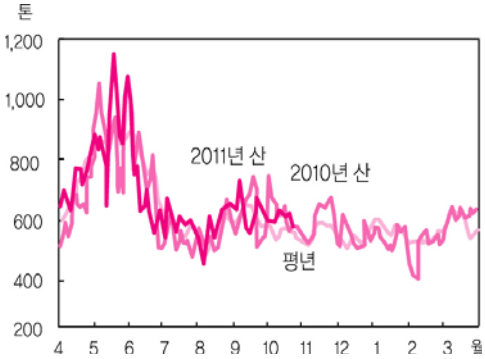
- 느타리 균상·봉지재배는 가격 하락세와 경영비 상승으로 출하가 감소하나 병재배는 생산기반 확대로 작년보다 출하가 늘어날 전망임.
- 양송이는 볏짚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배가 줄어드나 대체 배지 활용도가 높아져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출하가 전망됨.

## 3. 양념채소[8)]

### 3.1.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5년 4월~2010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양파 3/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5% 낮은 780원임.
    * (금년) 780원/kg → (작년) 920원 → (평년) 740원
  - 이는 2011년산 양파 생산량(150만 2천톤)이 작년보다 8% 많았고, 저장량(73만 7천톤)도 28% 많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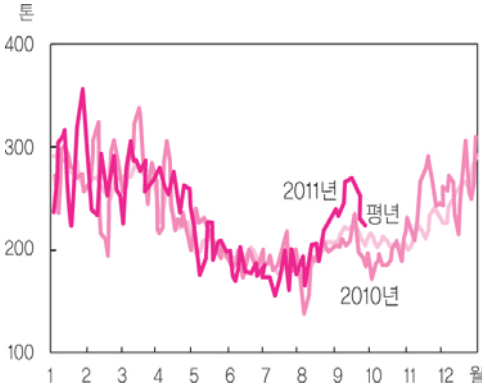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10월말 현재, 부패율은 8.1%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패율을 적용한 저장 양파 재고량은 51만톤으로 작년보다 34% 많은 수준임.
  - 재고량 증가로 향후 소비 증가가 뚜렷하지 않는 한, 4/4분기 양파 가격은 작년 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 양파 가격 하락과 배추, 무 등으로 재배의향이 대체되면서 금년보다 3% 감소 전망.
    * 품목별로는 조생종이 6%, 만생종이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부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웅(csung@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3.2.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 】

【 대파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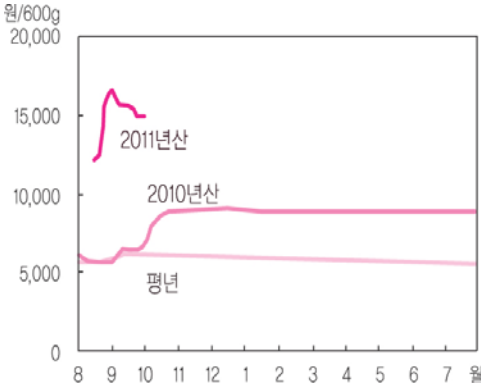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6년 1월~2010년 12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1,2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1,200원/kg → (작년) 2,250원 → (평년) 1,160원
  - 이는 작년 가격 상승으로 여름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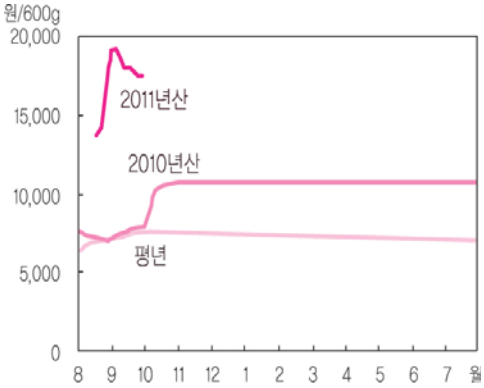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9~11월 출하되는 가을대파와 12월 이후 출하되는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각각 5%, 12% 증가하였음.
  - 작황도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하반기 대파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10월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960원으로 3/4분기보다 낮고, 11월 이후 대파 가격도 겨울대파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3.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 양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변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년 8월~201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건고추 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19% 높은 1만 2,770원, 양건은 104% 높은 1만 4,830원 수준이었음.
    * 화건: (금년) 12,770원/600g → (작년) 5,840원 → (평년) 5,730원
    * 양건: (금년) 14,830원/600g → (작년) 7,290원 → (평년) 6,960원
  - 이는 2010년산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크게 적었고, 수확 초기인 6~8월 초까지 기상악화로 탄저병이 확산되어 금년산 고추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금년산 고추의 7~8월 수확량은 잦은 집중호우로 작년보다 12~16% 적었으나, 9월 이후 수확량은 8월 중순 이후 기상이 호전되어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심했던 작년보다 0.3~6% 많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회차별 수확량을 고려한 금년 고추 10a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6~9% 감소한 194~202kg으로 추정됨.
  - 고추 재배면적에 추정단수를 적용한 2011년산 고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적은 8만 2,600~8만 6,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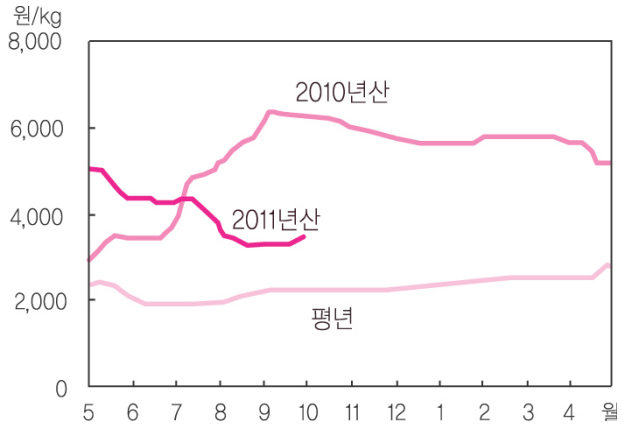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건고추(화건) 10월 이후 가격 8~9월보다 낮을 전망

  * 8월 중순이후 기상 호조로 9월 이후 수확량이 늘고, 냉동고추 등의 민간수입 증가와 정부비축물량이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3.4. 마 늘

【 마늘 도매가격 동향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6년 5월~2011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마늘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3,630원(난지형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5% 낮은 수준임.

  * 난지형 마늘: (금년) 3,630원/kg → (작년) 5,570 → (평년) 2,060

- 이는 2011년산 마늘 생산량이 전년보다 9% 증가하였고, 7월 이후 민간수입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1년산 마늘 저장량 추정 】

단위: 톤

| 연 산 | 저장량 | 10.20일 까지 출고량 | 10.20일까지 재고량 | 조정 재고량 (부패율 적용) |
|---|---|---|---|---|
| 2011 | 58,790 | 17,210 | 41,580 | 40,130 |
| 2010 | 63,350 | 17,120 | 46,230 | 43,920 |
| 증감률(%) | -7.2 | 0.5 | -10.1 | -8.7 |

주: 2011년산과 2010년산의 부패율은 각각 3.5%, 5.0%를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저장업체 조사결과, 금년 마늘 10월 20일까지의 출고량은 작년보다 1% 많은 17,210톤으로 추정됨. 출고량을 제외한 10월 20일까지의 마늘 재고량은 4만 1,580톤이며, 부패율(3.5%)를 감안할 경우 조정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9% 적은 4만 130톤으로 추정됨.
- 10월 말 중국 신선통마늘과 냉동마늘 민간수입가능가격은 각각 3,300원/kg, 1,300원/kg 내외로 전년 동월보다 73%, 62%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8월~10월까지 정부비축물량 6,151톤을 방출하였고, 현재 남은 물량은 5,834톤임. 정부에서 수매한 2011년산 국내 저장마늘 2,896톤(대서 1,604톤, 남도 1,292톤)을 포함하면 현재 총 정부비축물량은 8,730톤임.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최근 높은 시세로 인해 금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2%, 난지형이 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2년산 마늘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가율 】

단위: %

| 구 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체 |
|---|---|---|---|---|---|---|---|---|
| 한지 | 1.8 | 1.8 | 6.3 | - | 1.3 | - | - | 1.6 |
| 난지 | - | 4.3 | 5.2 | 7.7 | 3.4 | 2.7 | 1.2 | 4.7 |
| 전체 | 1.8 | 3.0 | 5.4 | 7.7 | 2.0 | 2.7 | 1.2 | 4.0 |

자료: 농업관측센터, 10월 13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1년 4/4분기 전망
  - 10.20일 기준 2011년산 저장마늘 재고량이 작년보다 9% 적으나, 민간 수입이 증가하고 정부비축물량도 지속적으로 방출될 계획임. 따라서 난지형 마늘 5대 도매시장 4분기(10~12월) 평균 도매가격은 3,500원/kg 내외로 작년 동기(5,960원/kg)보다 41% 낮을 것으로 전망됨.

## 3.5. 쪽파

【 쪽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쪽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쪽파 3/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4% 낮으나, 평년보다 53% 높은 4,180원 수준이었음.
    * (금년) 4,180원/kg → (작년) 2,690원 → (평년) 2,190원
  - 이는 7~8월 지속된 강우로 쪽파 작황이 크게 나빠져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9월부터 가격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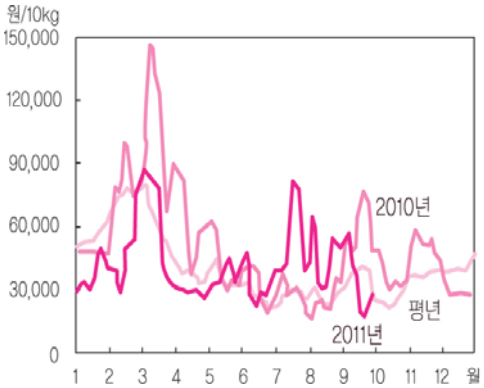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4/4분기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

* 가을쪽파와 김장쪽파 재배면적은 작년 가격 급등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9월 이후 기상 호조로 단수도 증가하고 있음. 연말까지 출하량은 작년보다 크게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쪽파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으며, 9월 가격보다 하락세를 보일 전망임.

## 3.6. 풋고추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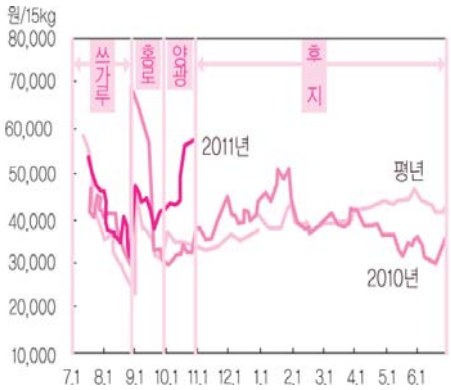
- 풋고추의 3/4분기 상품 1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청양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6%, 73% 높은 46,400원, 일반이 25%, 50% 높은 44,9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임.
  * 청양 : (금년) 46,400원/kg → (작년) 34,000원 → (평년) 26,800원
  * 일반 : (금년) 44,900원/kg → (작년) 36,000원 → (평년) 29,900원
- 주산지인 강원의 6월 하순부터 지속된 비의 영향으로 폐작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011년 4/4 분기 전망
  - 4/4분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대비 약세 전망
    * 10~12월 주출하지인 경남, 전남의 출하면적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상호전으로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주산지의 풋고추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하락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이 필요함.

# 4. 과일[9)]

##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7월 쓰가루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4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8% 높았고, 8월은 3만 7천원으로 2% 낮았음.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0일) 홍로 가격은 4만 4천원으로 작년 성수기보다 13% 낮았고, 9월 평균 가격은 4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21% 낮았음. 올해는 추석(9월 12일)이 작년보다 10일 빠르고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가 늦어져 물량이 단기에 집중되었고, 추석이후 시장거래일수가 작년보다 10일 정도 많아 성수기 및 9월 가격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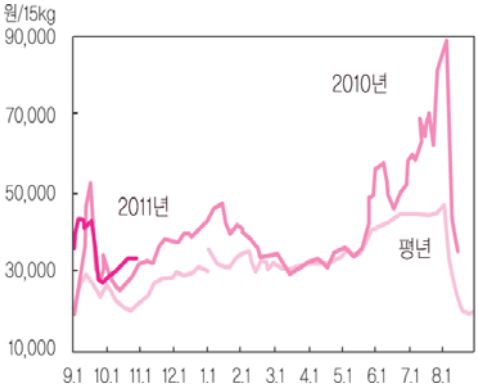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10월 이후 사과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0~40%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됨.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후지 생산량이 24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 krei.re.kr), 여민수(ch62minsu@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4.2.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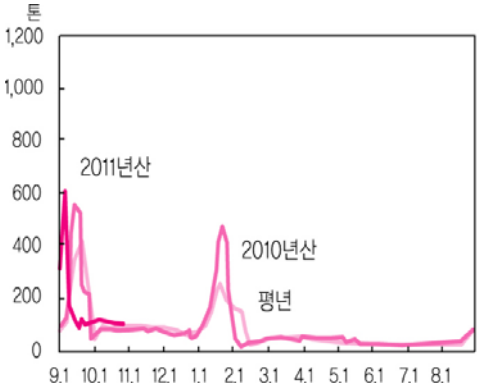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7월은 6만 4천원, 8월은 5만 6천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86%, 115% 높았음. 이는 7~8월 저장 배 물량이 적었기 때문임. 9월은 3만 6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 30% 가량 높았음.
  - 올해는 추석(9월 12일)이 작년보다 10일 가량 빨라 출하량이 단기에 집중되었음. 추석 성수기(추석 전 10일) 가격은 작년보다 4% 낮은 4만 1천원이었음.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배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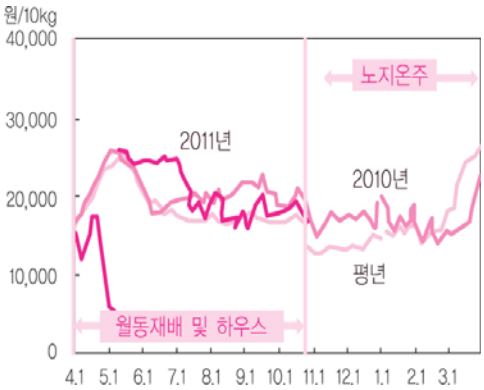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전망
  - 10월 이후 신고는 농가 저장량이 작년보다 8% 가량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은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3. 감귤

【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귤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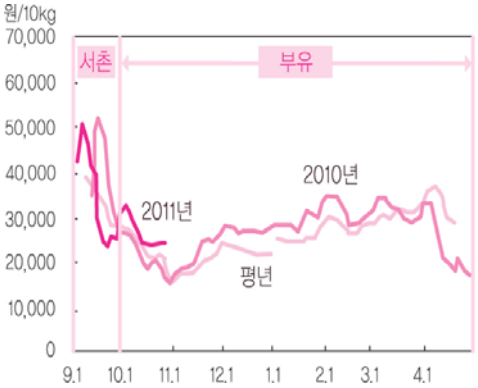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3kg에 7월은 2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고, 8월은 1만 8천원으로 12% 낮았음. 9월은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19% 낮았음. 7~8월 일조량이 적어 작년보다 품질이 좋지 않았음.

- 2011년 4/4분기 전망
  - 10~12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작년의 2만원보다 낮을 전망임.

##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단감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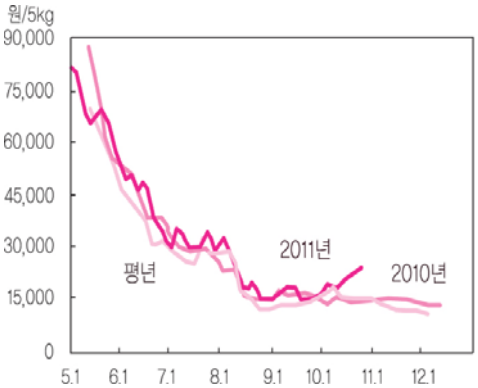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9월 단감 서촌조생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에 3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20% 낮았음. 추석이 작년보다 빨라 9월 초·중순에 출하가 집중되면서 반입량이 작년보다 38% 많았고, 동해 피해로 인해 품질이 다소 좋지 못하였음.

- 2011년 4/4분기 전망
  - 10~12월 부유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에 2만 3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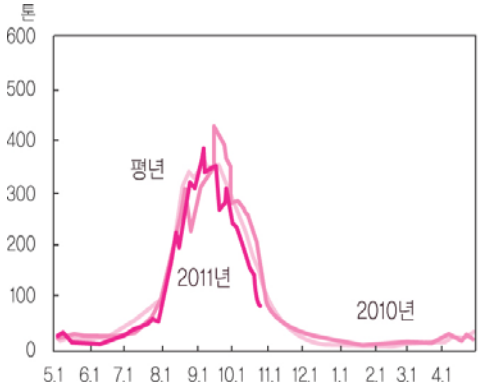
##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포도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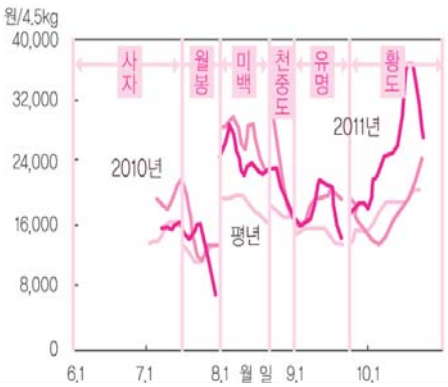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캠벨얼리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에 7월은 3만 2천원, 8월은 2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6%, 20% 높았음. 이는 노지 포도 출하가 지연되어 7월 시설포도 가격 강세가 8월 상·중순까지 이어졌기 때문임. 9월은 1만 6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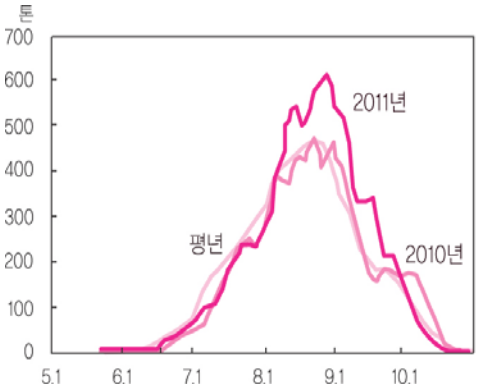
## 4.6. 복숭아

【 복숭아 유모계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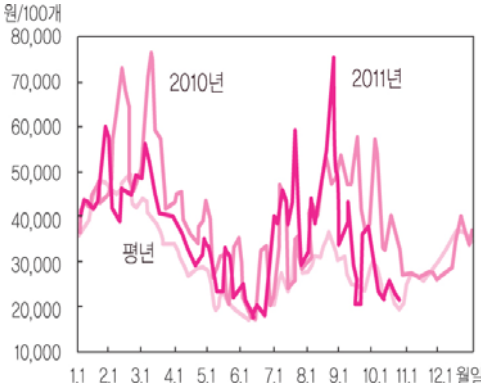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올해 복숭아는 일조량 부족으로 크기가 작았으나 후기 기상이 양호하여 당도와 색택은 작년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 3/4분기 복숭아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작년보다 낮았음. 7월 월봉 가격은 1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10% 낮았고, 8월 미백과 9월 유명 가격도 각각 2만 2천원,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6~8%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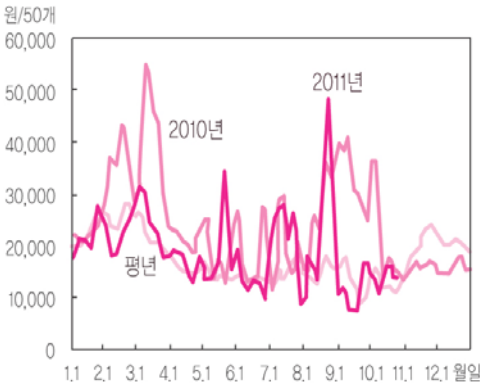
# 5. 과채[10)]

##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에 7월 4만 1,400원, 8월 5만 100원, 9월 3만 2,100원으로 7, 8월은 평년과 작년보다 크게 높았으나 9월은 작년보다 34% 낮았음. 하지만 9월도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7~8월은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음. 하지만 9월은 8월 중순 이후 기상 호전으로 작황이 회복되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7월 2만 2,200원, 8월 2만 5,300원, 9월 1만 1,8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2011년 4/4분기 전망
  - 백다다기오이 10월 평균도매가격(1~25일)은 2만 3,500원 수준임. 영남, 충청 지역의 주산지 재배규모가 늘었고, 맑은 날이 많아 출하량 증가하여 가격 하락세 지속되고 있음.
  - 취청오이 10월 평균도매가격(1~25일)은 1만 3,800원으로 일일 반입량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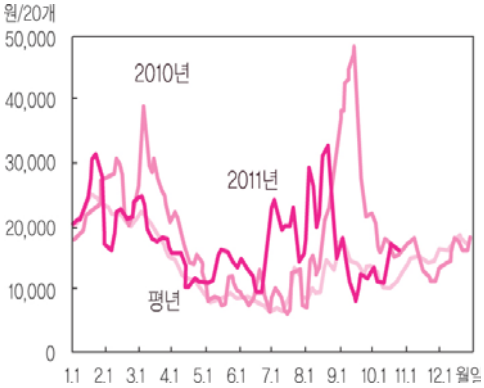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김수림 (surim@krei.re.kr), 지현서 (kpnu@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유정애(syhjya@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등락은 있으나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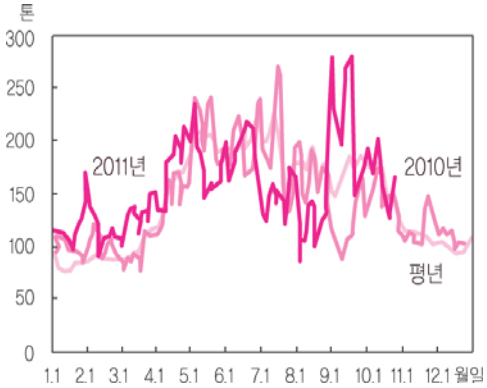
- 10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출하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지속 것으로 예상됨.
- 10~12월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작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겨울철 가격은 작년보다 약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5.2. 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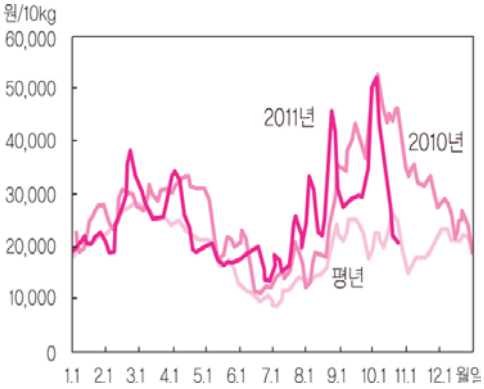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은 상품 20개에 7월 2만원, 8월 2만 5,200원, 9월 1만 2,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개에 1만 9,300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가량 낮으나 평년보다는 크게 높았음.
- 여름철 장마 영향으로 주산지 작황이 크게 부진하여 7~8월 가락시장 반입량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9%, 22% 적었으나, 8월말부터 기상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9월의 평년대비 반입량은 10% 많았고, 평균가격은 15% 낮게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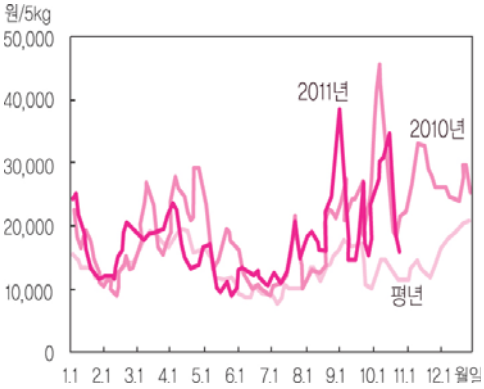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애호박 10월 평균도매가격(1~25일)은 1만 3,800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낮음.
  - 예년보다 이른 기온 하락 등으로 강원지역의 출하 종료시기가 당겨지나, 경기·충청지역의 재배규모가 확대되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10월 반입량(1~25일)은 작년 동기보다 18% 가량 많음.
  - 전남지역의 정식 지연과 품목 전환 등이 있으나 경기·충청 및 영남권의 규모 확대로 11월, 12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임.

##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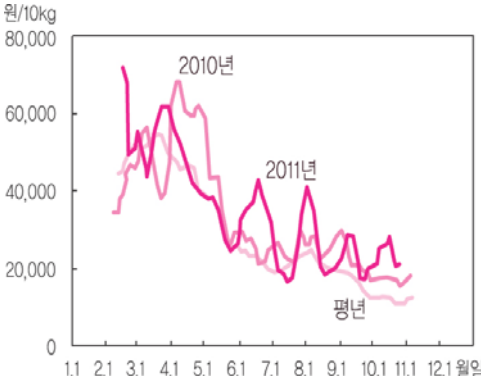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9,100원, 8월 3만 1,300원, 9월 3만 2,1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2만 7,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크게 높았음.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7월 1만 4,800원, 8월 2만 2천원, 9월 2만 2,1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만 9,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높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크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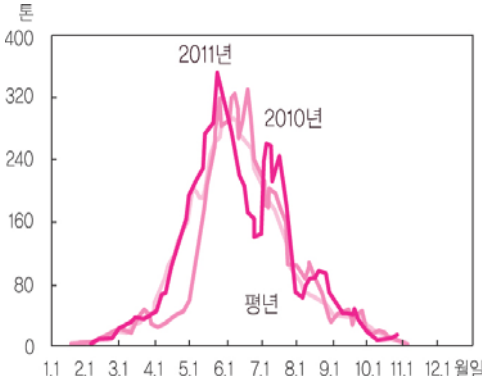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10월 평균도매가격(1~25일)은 일반토마토 상품 10kg 상자에 3만 3,400원, 방울토마토 상품 5kg 상자에 2만 7,700원임.
  - 일반토마토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하지만 11월은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방울토마토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10월 하순~11월은 출하기 가격 상승기대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4. 참외[11)]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자료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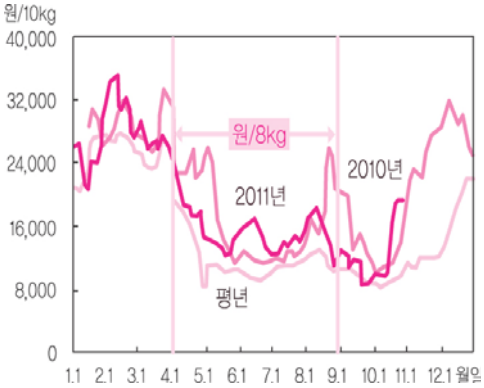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2만 2,200원, 8월 2만 5,600원, 9월 2만 2,600원으로 3개월 모두 작년보다 낮고 평년보다 높은 수준임.
  - 덩굴의 수세회복으로 6월 출하가 7월로 지연되어, 7~8월 반입량은 작년대비 각각 10%, 1% 증가하였음. 9월은 내년 영농을 위한 재배종료 및 토양 관리 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1% 감소함.

11) 2011년 2월부터 15kg 상자에서 10kg 상자로 경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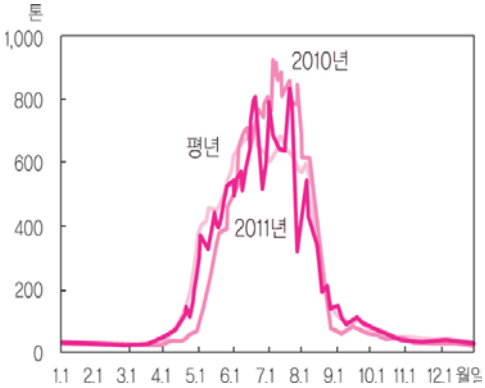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전망
  - 2012년산 참외 정식(의향)면적은 유통단위 변경 후 품질향상으로 인한 농가수취가격 상승과 토지 리모델링 사업 종료 후 신규 재배면적 확대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5.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자료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3/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은 10kg 상자에 7월 1만 3,700원, 8월 1만 5,300원, 9월 1만 600원으로 7월은 작년보다 12% 높았으나, 8~9월은 작년보다 낮았음. 그러나 3/4분기 시세는 평년보다 모두 높은 수준임.
  - 충청·호남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으며, 잦은 강우로 일조시간이 부족하였고 장마 후 고온으로 인한 병해 발생률이 높았음.

- 2011년 4/4분기 전망
  - 수박 상품 10kg 상자의 10월 평균도매가격(1~25일)은 1만 3,600원 수준임.
  - 10~11월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고령화로 인한 영농 은퇴와 재배의향감소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경남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정식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6. 축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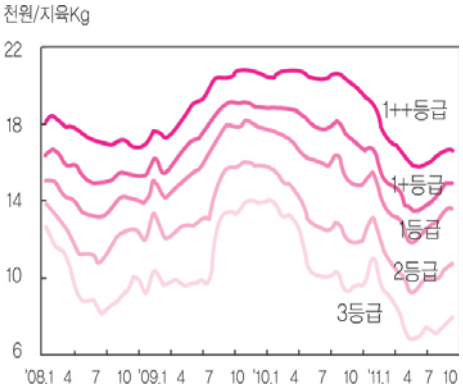
## 6.1. 한육우

### 가. 사육 마리수 및 가격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 마리수
  - 9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304만두
  - 구제역 살처분 매몰에도 불구하고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299만 마리로 전망됨.

- 도매가격
  -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 증가로 8~10월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15.1% 하락한 13,422원
  -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11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대비 약세 예상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이정민 연구원(fantom99@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남경수 연구원(ksnam@krei.re.kr) 이 작성하였음.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 | 9월(A) | 12월(B) | B/A |
|---|---|---|---|
| 사육 마리수 | 304만 마리 | 299만 마리 | -1.6% |
| 1등급 가격<br>(지육kg) | 6~8월<br>12,559원 | 9~11월<br>13,000~14,500원 | 3.5~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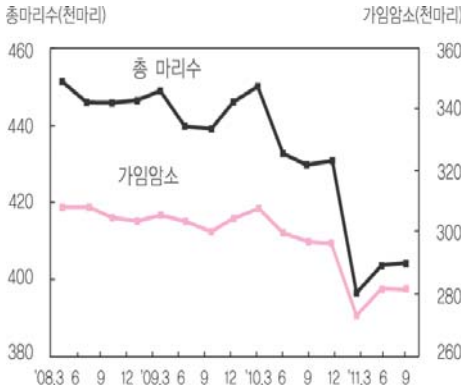
### 나. 대책 방향

- 암소 도태 유도 및 소비 촉진 활동 강화
  -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예상되어 암소 도태 적극 유도
  - 할인행사 등을 통한 한우고기 소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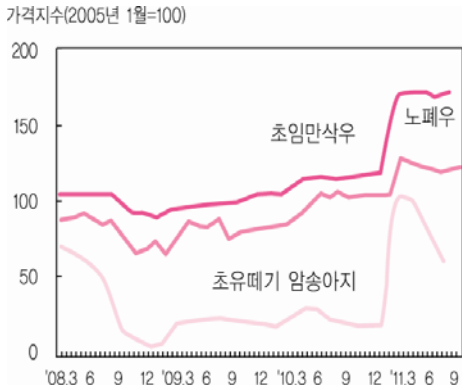
## 6.2. 젖소

### 가. 사육 마리수 및 가격 동향

【 젖소 사육 마리수 동향 】




【 젖소 산지가격 변동 】




- 사육동향
  - 2011년 9월 젖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40만 4천 마리임.
  - 1세 미만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한 7만 4천 마리, 1~2세 사육 마리수는 5.0% 감소한 9만 6천 마리였으며, 2세 이상 사육 마리수는 4.9% 감소한 23만 4천 마리임.
  - 가임암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5.1% 감소한 28만 2천 마리임.

● 젖소 산지가격 동향

- 초유떼기(암송아지): 구제역 종식 후 3월부터 농장운영이 재개되면서 암송아지 수요 증가로 암송아지 가격은 5월에 40만 3천원까지 상승함. 이후 하락하여, 10월 암송아지 평균 산지가격은 23만원으로 형성됨.
- 초임만삭우: 사육 마리수 회복과 원유생산을 위한 초임 만삭우의 수요 급등으로 초임 만삭우 가격은 6월에 413만원까지 상승함. 10월 초임 만삭우 평균 산지가격은 411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함.
- 노폐우: 쿼터량을 충족하기 위한 농가의 수요 증가로 3월 노폐우의 평균 산지가격은 105만원까지 상승함. 10월 노폐우 산지가격은 100만원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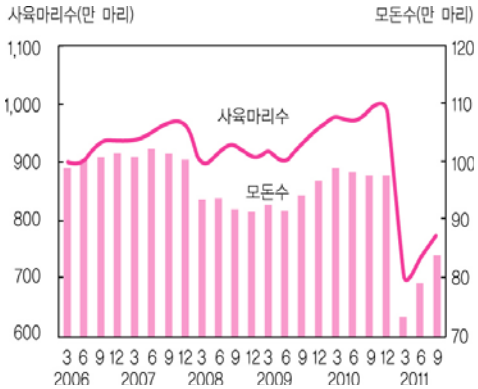
● 원유 생산 동향

- 2011년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마리수 증가와 마리당 원유 생산성 향상으로 1분기보다 6.9% 증가한 48만 7천 톤임.
- 2011년 3분기 원유 생산량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분기보다 5% 감소한 46만 3천 톤으로 추정됨. 4분기에는 원유 가격 상승과 잉여 원유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기상여건 호전 등으로 마리당 생산성이 전년보다 상승 전망됨.

## 6.3. 돼지

###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추이 】




【 돼지고기 지육가격 동향 】

- 사육 마리수
  - 일부 지역의 재입식 지연에도 불구하고 9월 사육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6% 증가한 778만 마리이며, 모돈수는 전분기보다 5% 증가한 83만 5천 마리임.
  - 12월 사육 마리수는 800만 마리 회복될 전망임.

【 돼지 사육 마리수 전망 】

| '11.9(A) | '11.12(B) | 증감률 |
|---|---|---|
| 778만 마리 | 805만 마리 | 3.5% |

- 지육가격
  - 돼지 지육가격은 추석 이후의 가격 하락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 회복, 다른 육류로의 소비대체 감소, 육가공업체의 국산 돼지 작업량 증가 등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임.
  - 11~12월 돼지 지육가격은 4,600~4,800원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돼지 지육가격 전망 】

단위: 원/kg

| '11.9 | '11.10 | '11.11 | '11.12 |
|---|---|---|---|
| 5,834 | 4,492 | 4,600~4,800 | 4,600~4,8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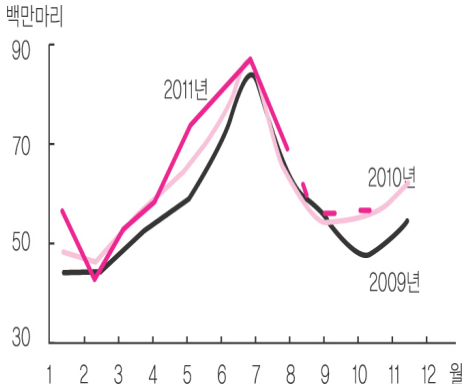
### 나. 대책 방향

- 저지방부위 소비 확대, 군납 재개 등 돼지고기 수요 확대 노력
- 재입식 시기 조절로 내년 하반기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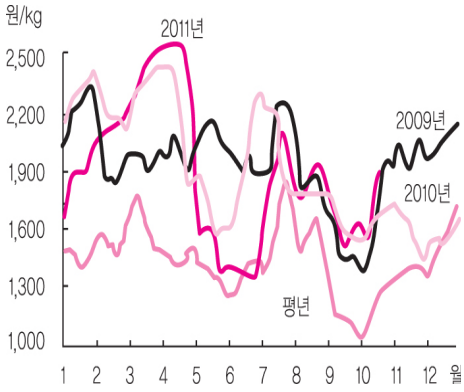
## 6.4. 육계

###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도계 마리수 추이 】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 2011년 3분기 동향
  - 산란에 가담한 종계 사육 마리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3분기 도계 마리수는 2억 1천 3백만 마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닭고기 무관세 수입의 영향으로 7월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후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7월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수입량은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3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3만 2천 2백 톤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 대체수요 효과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복 절기 강우로 인해 수요가 예전만 못함. 하지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소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3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0.8% 하락한 1,807원/kg으로 나타남.

● 2011년 4분기 전망

- 닭고기 수요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최근 종계 및 육계 생산성이 저하되어, 공급량 증가폭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생산 증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1~26일)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1,777원으로 전년보다 8.9%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1월: 1,500~1,700원, 12월: 1,500~1,700원).

### 나. 대책 방향

● 적절한 종계 도태로 장기적 공급과잉 대비

## 6.5. 산란계

● 사육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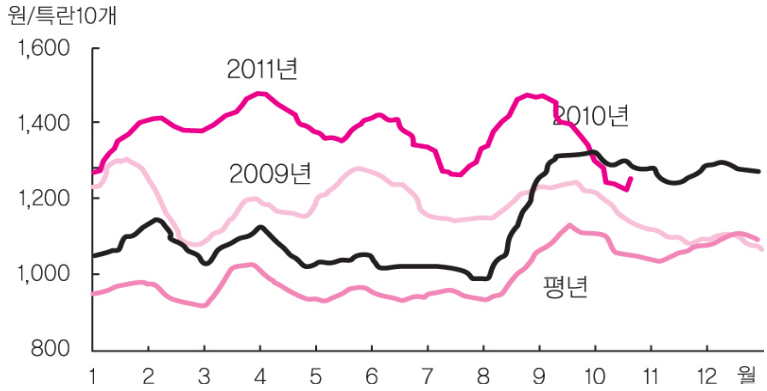
- 2011년 9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동기보다 1.9% 증가한 6천 1백만 마리임.
- 2011년 1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5.9% 낮은 수준이지만, 산란종계 입식 마리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병아리 생산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환우가 지속되고 있음. 1~8월 노계도태 마리수는 전년보다 29.5% 감소하였음.
- 추석이후 계란가격이 하락하면서 노계 도태가 증가하여 9월 노계 도태 마리수는 전년보다 54.2% 증가함. 하지만 여전히 노계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산란용 닭 마리수 증가하였지만, 노계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2011년 7~9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0.2% 상승한 1,365원(특란 10개)으로 높게 형성되었음.
- 10월(28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1,254원(특란 10개)으로 전년동월보다 2.9% 하락함. 추석이후 노계도태 증가로 계란 공급량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계절적인 수요 감소분이 커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됨.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 나. 대책 방향

● 2012년 계란 생산 과잉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노계도태 필요

- 계획적인 입식계획 및 노계도태 유도
- 2012년 계란공급 과잉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대비

● HPAI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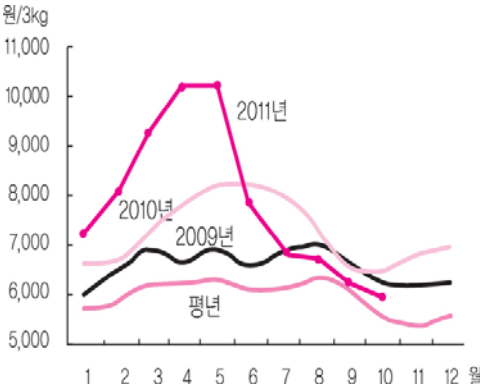
## 6.6. 오리

### 가. 2011년 하반기 수급 동향 및 전망

【 오리 사육현황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사육 및 수급
  -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끝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3분기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15.1% 감소한 1,293만 마리

- 산지가격
  - 종오리 입식증가에 따른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7월이후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약세 지속
  - 10월 오리가격은 생체 3kg당 5,990원으로 전년대비 7.8% 하락
  - 냉동 비축물량 증가와 10~11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감소로 11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약세 지속 전망. 12월은 연말연시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망

### 나. 대책 방향

- 현재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F1종오리 입식 자제

# 특 별 주 제

❶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사례와 한계

❷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

【특별 주제 1】

#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사례와 한계

정은미*

## 1. 로컬푸드의 배경과 범위

### 1.1. 로컬푸드의 등장

- 로컬푸드(Local Food)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Slow Food), 미국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 등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운동의 형태로 세계 식량체계의 대안적인 모델로 나타났음.
- 각국의 로컬푸드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먹을거리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

### 1.2. 로컬푸드의 배경

#### 1.2.1. 협의의 배경: 농산물 대량유통의 폐해

- 농산물의 대량유통 체계는 다양한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품질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식생활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의 소비 장소와 생산 장소 사이의 거리를 확대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jeongem@krei.re.kr)
** 본고는 2011년 2월 발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의 일부임.

- 해당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음.
- 해당 농산물의 연중 공급은 식생활을 풍부하게 한 반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식문화를 형성하며 농산물의 제철 감각이나 지역 특유의 식문화를 상실하게 되었음.
- 농업 생산 현장은 연중 소비자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유럽을 필두로 광우병, 구제역 등 농산물의 대량유통의 폐해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며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유기농산물 유통을 추진하는 소비자운동(생협 등)과 전문유통조직이 발생함.
- 199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요구로 이력추적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 산업화 전후의 농업 비교 】**

| | 산업화 이전 | 산업화 이후 |
|---|---|---|
| 농업 생산 | ◦ 자급자족을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br>◦ 계절, 지역 등 농업 생산의 제약 (지역 특성에 따른 품목수 제한) | ◦ 대량 생산(단작화, 전문화, 규모화)<br>◦ 시설화로 동일품목 연중 생산 가능<br>◦ 연중 출하가능한 주산지 형성 |
| 농산물 유통 | ◦ 대부분 지역 유통(비교적 저렴)<br>◦ 일부 소규모 광역 유통(고가, 특수 품목) | ◦ 대부분 광역 유통(수입농산물을 포함하여 가격경쟁력 위주)<br>◦ 일부 소규모 지역 유통(중소도시·농촌의 재래시장에서 비규격화 농산물 유통) |
| 농산물 소비 | ◦ 계절, 지역 등에 한정된 품목 소비<br>◦ 자급 또는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 | ◦ 계절, 지역에 무관한 연중 소비<br>◦ 농산물 소비 선택권이 광범위해진 반면, 식품 안전성 무방비 |

자료: 필자 작성

### 1.2.2. 광의의 배경: 이윤 추구 농업시스템

-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농업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 생산으로 다루어짐. 또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농업정책의 중심기준이 되고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에서도 근교 농촌지역 등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1970년대 경제성장 이후 농산물도 광역의 대량유통 체계로 변모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농업은 산업화, 경제성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농업근대화 정책으로 농업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이윤추구의 상품 생산으로 다루어졌음.
  - 그 결과 농업 생산이 자연생산력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기계 생산력에 의존한 결과 생태계에 적합한 지역성, 즉 자연의 다양성과 순환성을 상실한 채 자연과 인간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1.3. 로컬푸드의 범위

- 로컬푸드의 범위는 각국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물리적 또는 사회적 거리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영국은 특히 생산자나 지자체가 기관과 제휴된 농민시장의 활동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정의한 범위, 예를 들면 반경 30마일(약 48km)이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는 100마일(약 160km) 이내로 규정함.
  - 미국은 유럽보다 긴 운송 시스템이므로 실용주의적 접근법인 운송시간,예를 들면 소매점에서 차로 24시간 이내의 거리를 로컬푸드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물리적 거리보다는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40%인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소비

* 로컬푸드 범위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내용은 홍경완 외(2009)에서 재인용함.

함으로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로컬푸드 활동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그러나 이해관계자에 따라 물리적 거리보다 로컬푸드시스템의 목표와 지향점*, 로컬푸드의 경제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함.
  - 영국 토양협회 : 생산, 가공, 거래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형태이고 이를 위해 물리적, 경제적 활동은 생산되는 지역 내에서 조절되어야 하며 지역민에게 건강, 경제적·사회환경적 이익을 주는 활동이어야 함.
  - 미국 : 먹을거리 영역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제적 영역에서 연결된 소규모 가공업자 또는 생산자, 소비자가 더욱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용하는 식량체계임.

- 따라서 로컬푸드는 일정 지역범위에 한정된 개념이라기보다 로컬푸드가 갖는 지속가능성(안전성, 경제성, 환경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점이 중요함.
  -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생산자나 이해관계자, 지방행정조직이 로컬푸드 사업을 실천하며 구체적인 로컬푸드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로컬(local)은 공간적 경계의 의미보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환경, 지역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관계라는 광범위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성은 생태적·환경적인 지속성을 전제하면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인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임. 그러므로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가치는 성장과 발전을 무조건 선으로 생각했던 공업화 사회가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임.

* 생산 시스템에서 생물다양성 증가와 에너지 사용 최소화, 식품에는 건강에 위해한 첨가물 금지, 생산자~가공자~소매상~소비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노동력 착취금지, 환경에 양호한 유기농산물 거래, 동물복지의 규범엄수, 지역의 음식과 음식문화의 이해와 지식 장려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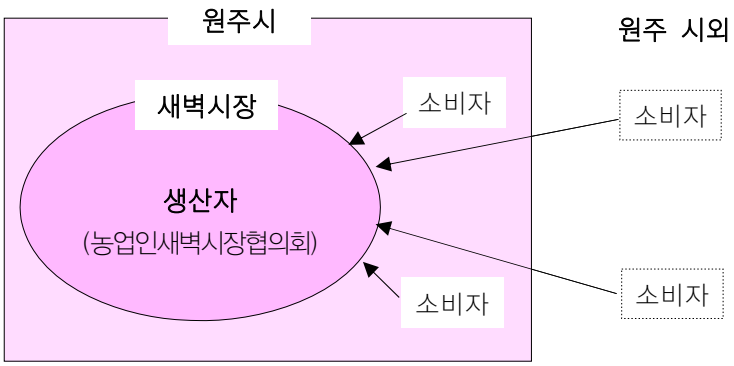
# 2. 로컬푸드의 운영실태 및 사례 비교

## 2.1. 로컬푸드의 운영실태

### 2.1.1. 판매활동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 1: 강원 원주 새벽시장
  - 새벽시장은 지역산 신선 농산물을 소량이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는데 의의가 있음.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며 소량 생산되는 품목, 가공·조리품, 표준 규격화 되지 않은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에 기여함. 특히 고령자나 여성 농민의 참여도 많은데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소액이지만 소득의 기회가 됨. 매일 개장되므로 농업인에게 단골 소비자가 생기고 상거래의 상시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음.
  - 새벽시장은 판매가 주목적인 생산자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자로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로컬푸드임.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 나아가 식품안전성을 고려한 생산방식과는 아직 거리가 멀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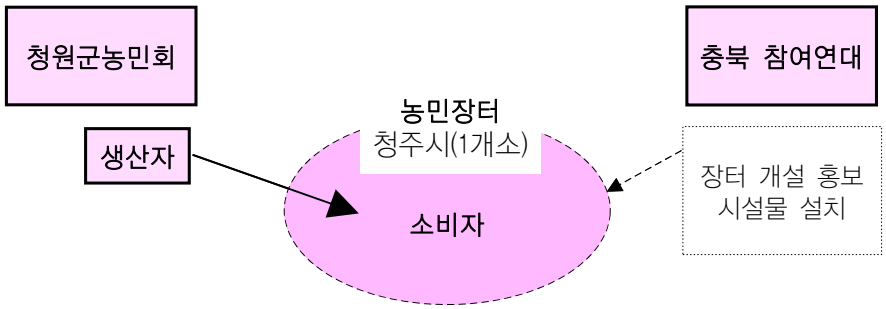
【 강원 원주 새벽시장 운영체계 】




자료: 필자작성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 2: 충북 청주 농민장터
  - 청주 농민장터는 기존 농협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같은 형태임.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긴 하나 연 2~4회 개장되는 비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고 농산물의 품절이나 품목 구색이 부족하여 장(場)의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여 거래의 지속성은 낮음.
  - 농가 입장에서 비규격, 비표준화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판로임. 생산자는 유통을 위한 노동력 투하(다듬기 등)만큼 농가수취가격이 향상되므로 농가소득이 적은 영세농과 고령자의 참여 의지가 강한 반면 젊은 전업농은 관심도가 낮고 참여율도 낮음.
  - 농산물 수급 및 장터 운영을 위한 경비 조달,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소비 측 운영주체가 재정이 어려운 시민단체라는 한계가 있음.

**【 충북 청주·청원 농민장터의 운영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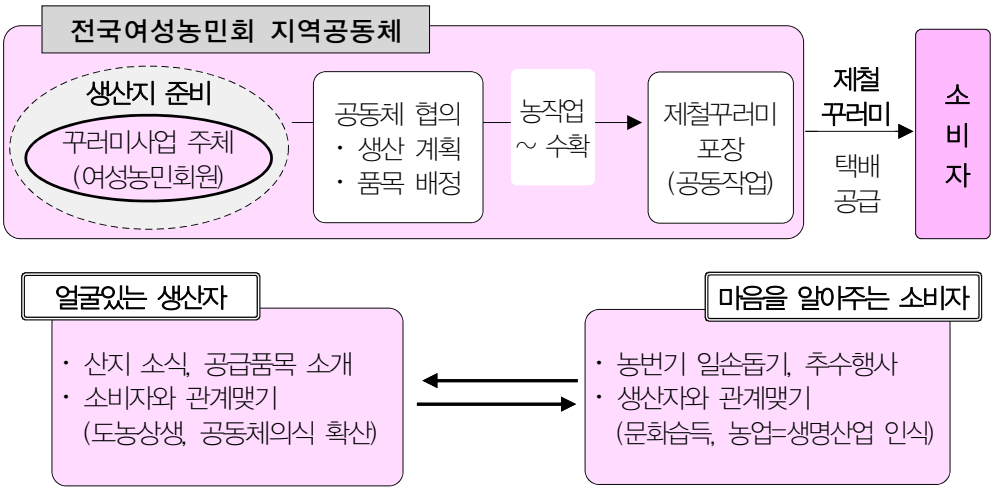

자료: 필자작성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 3: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 사업
  - '제철꾸러미'는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경제사업임.
  - 토종씨앗을 지키자는 캠페인에 무심한 반응에서 보이던 여성농민이 제철꾸러미를 출하하며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생산자로

변하였음. 제철꾸러미는 농산물 이외에도 농가에서 직접 만든 저장식품도 제공됨. 꾸러미 사업을 통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여성 농민에게도 지역 식품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어 전통적인 농산물 가공이 계속 전해지고 농촌지역의 밥상도 다양해지고 있음.

- '제철꾸러미' 사업은 소량 다품목 생산의 텃밭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농업의 가치를 복원하고 있음. 생산량이 많을 때는 넉넉하게 보내지만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이 없는 겨울철은 각종 전통 가공식품의 먹을거리 대체재를 제공하므로 '공급 부족 현상'보다 잊혀졌던 먹을거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견되고 있음.

【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의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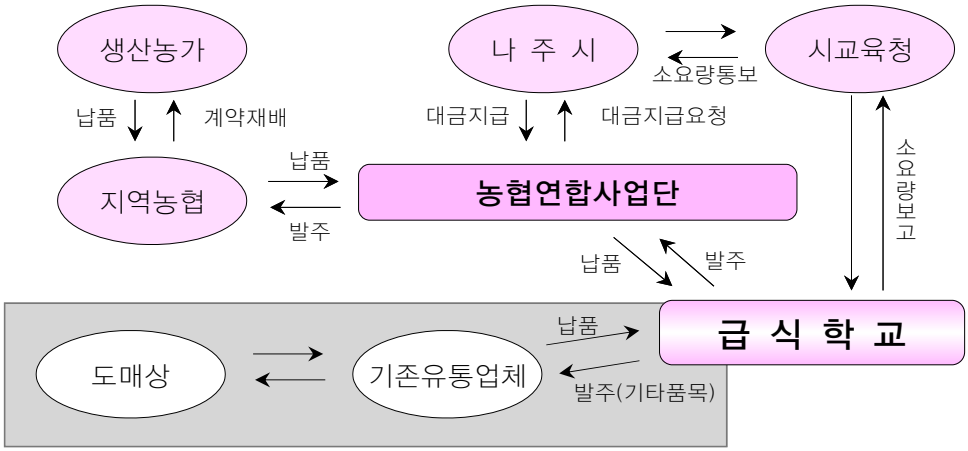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 2.1.2. 학교급식

- 로컬푸드 학교급식 사례 1: 전남 나주시
  - 나주시 학교급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자체 장의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음. 그러나 나주시의 학교급식 유통은 소량의 농산물 거래에서 나타나는 물류의 비효율성이 큰 한계임.

- 생산자는 기존과 같이 지역농협을 통해 출하하므로 별도의 수집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각급 학교에 배송하는 물류비용은 농협연합사업단이 부담함. 결국 배송 물류비가 부담이 되어 사업단은 학교급식 전문유통업체에게 산지유통센터의 이용권을 주고 학교급식 배송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음. 소량의 지역산 계약재배 농산물 이용을 위해 별도의 배송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임.
- 그러므로 지역의 학교급식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래주체가 적고 단순 일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특히 학생 수가 적고 지역범위가 분산된 농촌지역은 인근 농가와 연계된 학교급식의 지역 유통 시스템 개발이 향후 과제임.

**【 전남 나주시 학교급식 운영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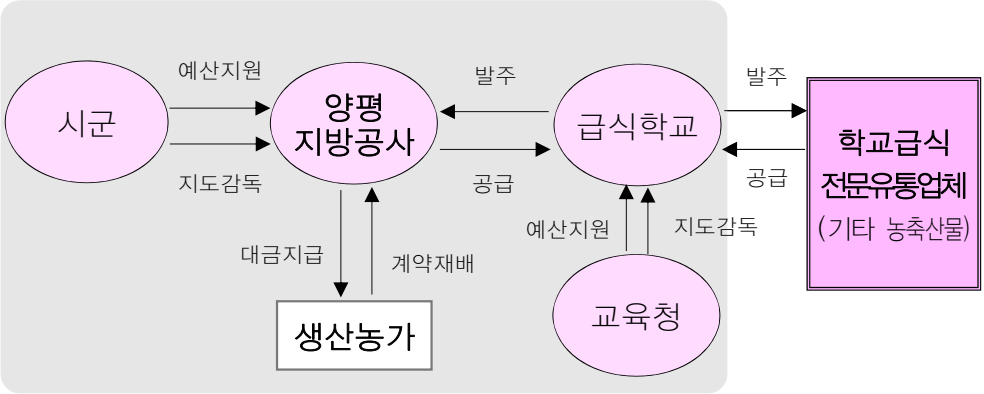

자료: 농협나주연합사업단(2008)

● 로컬푸드 학교급식 사례 2: 경기 양평군

- 양평군은 이미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역 학교급식 유통에 추가 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소요됨. 양평지방공사의 업무 중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의 수집체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 물류체계에 분산기능을 첨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임.

- 다만 양평군 학교급식은 생산에서 급식까지 전 과정의 의사소통이나 업무조정 역할을 양평지방공사가 담당하면서 관련주체에게 유통업체와 같은 거래상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임. 생산자와 영양교사가 품질에 관해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협조관계가 아니라 양평지방공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요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점은 양평 학교급식의 한계임.

**【 경기 양편군 학교급식 운영 방식 】**




## 2.2. 로컬푸드의 사례 비교

### 2.2.1. 판매활동의 사례 비교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의 운영주체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판매를 주도하고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형태임.

- 판매활동에서 새벽시장과 농민장터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면거래이고 제철꾸러미는 전국적인 거래이지만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계약거래임. 따라서 대면거래나 계약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방법임.

- 한편 생산자가 다수 참여하는 새벽시장과 계약재배인 제철꾸러미는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소수의 생산자의 일시적 행사인 농민장터는 수급이 불안정하여 시장으로의 기능이 매우 미흡함.

**【 판매활동 사례별 운영체계 비교 】**

| | 강원 원주<br>새벽시장 | 충북 청주<br>농민장터 | 전국여성농민회<br>제철꾸러미 |
|---|---|---|---|
| 운영주체 | 새벽시장농업인 협의회 | 청원군농민회+충북참여연대 | 전국여성농민회 지역공동체 |
| 연간 개장일 | 4월 하순~12월 초순(매일) | 연 2~4회, 2일/회 | 매주(또는 격주) 1회 |
| 연간 참여자 | 생산자 약 450명<br>소비자 약 22만 명 | 생산자 10~20명<br>소비자 2천명 | 생산자 회원 80명<br>소비자 회원 1천명 |
| 판매방식 | 재래시장과 동일 | 재래시장과 동일 | 소비자(회비 월 선납)에게 꾸러미 택배 배송 |
| 수급 | 안정-다수 생산자의 장기거래<br>(생산자 상시 출하+판매) | 불안정-소수 생산자의 단기거래<br>(생산자 일시 출하+판매) | 매우 안정<br>월별 계약거래 |
| 가격결정 | 협의 가격 | 협의 가격 | 생산자가 결정<br>(꾸러미 단위 가격, 개별 가격 없음) |
| 로컬푸드의 성격 | (동일지역 생산-소비)<br>지역 생산자가 지역 중심지에 장 개설 | (인접지역 생산-소비)<br>소비자 거주지에 인접 지자체 생산자가 판매 | (지역 생산-전국 소비)<br>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배려가 전제되는 직거래 |
| 사업의 의의 | 지역 주민간 농산물 직거래 - 유통비용 절감 |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가능성 타진의 기회 | 제철꾸러미를 통해 전국 소비자와 새로운 관계 맺음 |

자료: 필자 작성

- 로컬푸드의 판매활동은 생산자 측의 적극적인 판매행위가 중심이지만 소비자의 행위는 그 활동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새벽시장이나 농민장터는 농산물의 단순 거래로서 소비자는 소극적인 소비행위에 그침. 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제철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가 거래를 성립시키는 주요 요인임.

- 판매활동 사례의 농산물 거래를 비교해 보면, 새벽시장과 농민장터는 기존 농산물 직거래에 생산자가 판매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제철꾸러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계약이라는 관계성과 지속성을 갖는 직거래라는 것이 특징임.
  - 거래 형태 : 새벽시장과 농민장터는 개별 생산자와 개별 소비자의 거래이지만 제철꾸러미는 생산자단체의 회원과 소비자 회원의 거래임.
  - 거래 내용 : 판매활동은 농산물 공급과 현금 지불이라는 재화의 교환이 주 목적이지만 제철꾸러미는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생산방식이나 생산자에 대한 감사, 신뢰 등 서로를 배려하는 인격적인 교류도 이루어짐.
  - 거래의 지속성 :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인 새벽시장과 농민장터는 품목별 수급에 따라 지속성에 차이가 있음. 반면 제철꾸러미는 계약기간 동안 품목, 수량, 가격을 생산자가 결정하므로 품목별 수급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함.

- 거래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임. 새벽시장이나 농민장터에서 소비자는 필요한 품목과 양을 구입하지만, 제철꾸러미는 계약에 의해 생산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공급하는 품목과 공급량을 소비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소비해야 함. 보통 소비행위를 논할 때, 소비자가 소비할 품목과 소비량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적극적인 소비행위로 알려져 있지만, 농산물 소비는 오히려 제철에 공급되는 품목과 공급량을 적절히 소비하는 것이 적극적인 소비행위임.

【 판매활동 사례별 농산물 거래의 비교 】

| | 강원 원주 새벽시장<br>충북 청주 농민장터 | 전국여성농민회<br>제철꾸러미 |
|---|---|---|
| 특징 | ◦ 생산자가 판매주체인 농산물 직거래 |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 생산과 소비 주체가 계약하는 농산물 직거래 |
| 거래 형태 | ◦ 개별 생산자 → 개별 소비자 | ◦ 생산자(단체) 소그룹 → 소비자 회원 |
| 거래 내용 | ◦ 재화의 교환<br>- 생산자→소비자 : 농산물 공급<br>- 소비자→생산자 : 현금 지불 | ◦ 재화의 교환 + 인격 교류<br>생산자 → 소비자 : 농산물 공급<br>+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생산방식<br>소비자→생산자 : 현금 지불<br>+ (생산자의 수고에 대한) 감사,<br>(다음 거래를 약속하는) 신뢰 |
| 거래의 지속성 | ◦ 품목별 수급에 따라 변동, 생산자는 판매 위해 항시 대기(비용 발생)<br>- 필요시만 구입하는 단골 수준의 소비자 | ◦ 계약기간 동안 품목별 수급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거래 가능<br>- 농산물 수급에 소비량을 맞추는 소비자 |
| 생-소 관계성 | ◦ 생산자: 소득과 직결되는 판로<br>◦ 소비자: 다양한 구입처 중 하나 | ◦ 생산자-소비자 상호 중시 관계<br>관계 조정을 위해 상시 협의(게시판 이용) |
| 주체의 만족도 | ◦ 생산자는 거래 요구가 크지만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 유동적<br>◦ 만족도 : 생산자 ≦ 소비자 | ◦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자로서 양보와 배려가 있는 관계<br>◦ 만족도 : 생산자 = 소비자 |

자료: 필자 작성

- 로컬푸드 판매활동 사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차이가 있음. 새벽시장과 농민장터에서 생산자는 항시 판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형태이고 소비자는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야 거래는 지속됨. 반면 제철꾸러미처럼 계약관계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다면 계약을 해지하므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만족도는 같다고 볼 수 있음.

### 2.2.2. 학교급식 사례의 비교

-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사용은 지자체의 농산물 판매와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 장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거나 필요성을 인식한 생산자의 발의로 발생하였음.

**【 학교급식 사례별 운영체계 비교 】**

| | 전남 나주시 | 경기 양평군 |
|---|---|---|
| 지역특성 | -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도시<br>광주광역시(인구 141만명) 인접<br>- 전남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br>생산 증가하나 판로 확보 어려움 | - 인구 9만 6천의 농업군, 전원도시<br>-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최대 산지<br>-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 참여 |
| 시작년도 | 2004년 | 2007년 |
| 급식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br>122개 학교, 약 1만 5천명 | 초중고 45개교, 약 1만 3,500명 |
| 품목수 | 100여 품목 | 280여 품목 |
| 급식유통 운영주체 | 농협나주연합사업단(산지유통센터)<br>- 2004년 나주시의 학교급식 추진으로 지역농협, 농협나주시지부가 공동출자한 판매사업체가 생산자와 계약재배<br>- 나주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광주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판매공급 | 양평지방공사(지자체 출자 유통사업단)<br>-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2003년 산지유통센터 설립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 진출<br>- 양평 학교급식 이전부터 기존 거래처 존재 수도권 학교급식 450개교, 친환경 전문 매장 143개소 등(연매출 약 170억원) |
| 생산자 조직 | 3개 지역농협의 시설채소, 미맥류, 잡곡류, 과일류, 가공품의 5개 친환경농산물 작목반과 계약재배 | 지역농협 7개, 11개 영농조합법인, 14개 작목반, 4개 주식회사, 개별 농가와 계약재배 |
| 농산물 유통 (수집, 분산) | 수집: 생산자→지역농협→산지유통센터<br>분산: 한화푸드(학교급식 전문업체) | 수집 : 양평지방공사<br>분산 : 양평지방공사 |
| 농산물 유통 특징 |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없음<br>- 농산물 수집, 분산이 별도 체계로 운영, 특히 분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문제됨 | 운영주체의 지역 유통 전문성 확보로 물류비 절감(미흡한 점 많지만)<br>- 수집, 분산을 동일주체가 동일지역 담당 |
| 학교급식 관련주체 만족도 | 1) 학교급식 공급 생산자의 만족도 높음(계약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20% 이상)<br>2) 영양교사의 불만(농산물에 대한 문제제기)<br>- 농산물 상품성에 대한 이해 부족(신선하지만 벌레가 먹은 것은 품질이 낮다 등)<br>- 비규격 농산물 공급은 조리시간이 더 걸린다<br>3) 운영주체의 농산물 유통(수집과 분산)에 과다비용 발생(소량 다품목 유통의 한계)<br>-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은 한정(품목별 생산·소비의 불균형) | |

자료: 필자 작성

- 전남 나주와 경기 양평은 인구수나 학교급식 대상 학생 수가 비슷함.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업에 진출하고 지역농산물 수집체계를 갖춘 경기 양평과 달리 전국의 여느 농촌과 같이 개별 생산자의 출하체계만 있는 전남 나주는 학교급식의 농산물 물류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동일 주체가 동일 지역을 순회 수집하고 분산하는 경기 양평의 학교급식이 전남 나주보다 물류비가 적게 소요되고 있음.

- 그동안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이용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로컬푸드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 것은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 불균형(제4장 참조)으로 지역내 농산물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실패 사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실패 사례*는 지역생협과 주로 거래한 전북 정농영농조합법인(대표 정경식)임. 정농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하반기부터 전주지역 유치원과 전북지역 친환경 시범학교 20학교 가운데 10개 학교의 급식을 공급하였지만 2006년 6월말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음.
  - 생협이든 학교급식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필요할 때 제때 공급해야 하지만 실제 생산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과잉 생산량의 쌀을 비롯하여 양파, 마늘, 감자, 고추 등임.
  - 그나마 저장성이 있어 물류센터에서 소포장해서 출하하지만 생산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의 소비량이다 보니 재고손실이 쌓임.
  - 실제 학교급식을 통해서 영농법인 경영은 더 어려워졌고 결국 농가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음. 무엇보다도 채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음.
  - 식재료 공급의 현실적인 과제는 엄격한 선별, 예를 들면 일반 농산물의 '때깔

* 정경식, "학교급식 현장에서 나의 뼈아픈 경험", 한살림 소식지 2006년 8월.

좋음'에 익숙해진 담당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었음. 공급한 방울토마토가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크기가 고르지 못하다 해서 반품당한 후 두 시간 내에 다시 물량을 수급하였고, 결국 생산자가 적잖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행정실장에게 야단을 맞았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학교 측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음을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음.

- 학교급식에 공급하며 느낀 것은 농산물의 바른 생산과 바른 유통 방식에 대해 지역에서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것임. 학교급식에 식재료 공급은 누군가 계속 해야 하지만 지역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완결성을 이루기에는 아직 무수히 많은 난관이 있음.

## 3. 로컬푸드의 장점과 한계

### 3.1. 로컬푸드의 장점

-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한 먹을거리 대안 체계임. 따라서 농산물 거래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임.

- 농산물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경매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시장 거래라면 거래처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지만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전제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로컬푸드의 지역 유통에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가까운 장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직접 생산 현황을 확인하므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
  - 농산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안목을 기르고 농업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됨.

- 로컬푸드의 지역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지역 소비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의견교류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유통경비가 절감되므로 수취가격이 높아져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함으로서 소량 생산되는 품목,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품이나 저장식품, 비규격 상품도 판매할 수 있고, 직접 만나는 대면판매이거나 계약판매이므로 소비자의 반응이나 평가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생산자가 품질개선과 고객 서비스에 적극적이 됨.
  - 특히 고령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삶의 보람과 일에 대한 의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지역 연대감이 강해짐. 소규모 텃밭이라도 경작이 가능하므로 지역에서 휴경지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역특산물이나 전통 가공식품, 요리법을 계승하는 등 농지와 기술을 보전, 계승함.

## 3.2. 로컬푸드의 한계

- 로컬푸드는 대량유통이 초래한 먹을거리의 폐해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대량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 농산물은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므로 수집, 분산하는 유통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농산물이 지역적으로 생산가능한 품목을 정해진 시기에 다수의 생산자가 생산하여 연중 소량 다품목을 소비하기 때문임. 농산물의 대량유통은 단시간에 가격을 결정하여 수집과 분산을 용이하게 하므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음.

-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측면과 업무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음. 로컬푸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나 교류하거나 판매에 대해 관련 주체와 협의하는 과정 등 생산자도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민해야 하지만 비용으로 환산되지 못함. 그러므로 생산자가 출하하고 판매하는 활동은 추가 노동력이라고 생각해야 함.

- 또한 로컬푸드라면 지역산 농산물은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음. 로컬푸드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공급 가능한 시기와 공급가능한 품질의 농산물 가격, 판매방법, 품질관리, 판매 후 재고잔량 처리 등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과 함께 경영관리 능력이 요구됨.

- 지역농산물만으로 지역 소비자의 모든 먹을거리를 공급하기는 곤란하므로 로컬푸드가 농산물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어려움. 다만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품목, 가능한 생산자부터 시도하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함.

## 3. 참고 문헌


김종덕. 2009.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 세계식량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이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6. 나주시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용역 보고서.

정경식. 2006. “학교급식 현장에서 나의 뼈아픈 경험”. 한살림 소식지 2006년 8월.

푸트남. 안청시 옮김.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홍경완 김지영 김양숙. 2009. “로컬푸드의 개념적 이해 연구”.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2009년 4월 25일, pp. 1179-1199)

根井康之. 1989. 市場原理と生活原理. 農産漁村文化協会.

植田和弘. 2004. 持続可能な地域社会のデザイン. 有斐閣

【특별 주제 2】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

정 학 균*

## 1. 서 론

-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대표적인 저탄소농업인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까지 유기와 무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9%로 확대시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대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강화 등이 있음.

- 정부는 또 2010년에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유기농업 재배면적 및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를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기반 구축, 기술개발, 유기농식품 관리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기농식품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비중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2010년에 폐지되었고, 2015년까지만 저농약인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저농약 재배농가가 유기 혹은 무농약재배로 전환할 가능성 매우 높음. 따라서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는 가격하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 유기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위험에 대응하여 유기농산물 수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hak8247@krei.re.kr)

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통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글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하고,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2.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현황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8건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품목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378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음.

- 2004년 출하량 1,340톤에서 2005년에 풀무원의 유기가공품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2005년에는 235톤에 그쳤음.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 1,748톤까지 증가하였음.

**【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

단위: 건, 개, 톤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인증건수 | 38 | 99 | 194 | 187 | 231 | 199 | 258 |
| 품목수 | - | - | - | 100 | 125 | 250 | 378 |
| 출하량 | 1,340 | 235 | 1,103 | 1,893 | 1,748 | - | - |

주: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2009년부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가공식품의 2010년 품목별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식품류가 96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류 71 품목, 음료류 56 품목, 식용유지류 20 품목 등의 순이었음. 제품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기타식품류 395개, 다류 346개, 음료류 141개, 장류 78개, 식용유지류 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인증실적(2010년) 】

| 품목(대분류) | 건수 | 제품수 | 품목(대분류) | 건수 | 제품수 |
|---|---|---|---|---|---|
| 과자류 | 8 | 47 | 면류 | 6 | 14 |
| 빵 또는 떡류 | 7 | 17 | 다류 | 71 | 346 |
| 잼류 | 7 | 39 | 커피 | 10 | 20 |
| 설탕 | 12 | 24 | 음료류 | 56 | 141 |
| 포도당 | 1 | 1 | 특수용도식품 | 4 | 6 |
| 과당 | 3 | 5 | 장류 | 19 | 78 |
| 엿류 | 8 | 15 | 조미식품 | 16 | 22 |
| 당시럽류 | 4 | 10 | 김치류 | 8 | 24 |
| 올리고당류 | 2 | 4 | 절임식품 | 5 | 8 |
| 식육 또는 알가공품 | 1 | 3 | 주류 | 5 | 6 |
| 두부류 또는 묵류 | 9 | 13 | 기타식품류 | 96 | 395 |
| 식용유지류 | 20 | 52 | - | - | - |
| 계 | - | - | - | 378 | 1,290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0)

-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정도 비싼 편으로 나타났음. 품목별로는 유기로 재배된 녹차가 일반 가공식품 대비 3.6배로 가격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고, 우유 3배, 현미스낵 1.8배 등의 순이었으며 누룽지가 1.3배로 가장 낮았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국산원료) 가격 프리미엄 】

| 품목 | 단위 | 유기식품 | | | 일반식품 | | 가격 프리미엄 (a/b) |
|---|---|---|---|---|---|---|---|
| | | 가격(원) (a) | 제조국 (원료) | 인증마크 (인증기관) | 가격(원) (b) | 제조국 (원료) | |
| 녹차 | 100g | 14,333 | 한국(한국) | USDA (CUC[1]) | 4,000 | 한국(한국) | 3.58 |
| 누룽지 | 100g | 2,143 | 한국(한국) | 품질인증 (NAQS[2]) | 1,700 | 한국(한국) | 1.26 |
| 미숫가루 | 100g | 2,200 | 한국(한국) | - | 1,580 | 한국(한국) | 1.39 |
| 요구르트 | 100ml | 1,311 | 한국(한국) | - | 840 | 한국(한국) | 1.56 |
| 우유 | 100ml | 750 | 한국(한국) | - | 250 | 한국(한국) | 3.00 |
| 청국장분말 | 100g | 7,667 | 한국(한국) | - | 5,000 | 한국(한국) | 1.53 |
| 현미스낵 | 100g | 3,857 | 한국(한국) | - | 2,143 | 한국(한국) | 1.80 |
| 평균 | | | | | | | 2.02 |

주 1) CUC=Control Union Certification.
2) NAQS=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박성훈(2008).

# 3.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와 소비의향

## 3.1. 조사개요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향후 구입의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유기가공식품 구매 경험자(400명)는 2011년 1.13~20일까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였으며, 구매 비경험자(103명)은 2011년 1.18~19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103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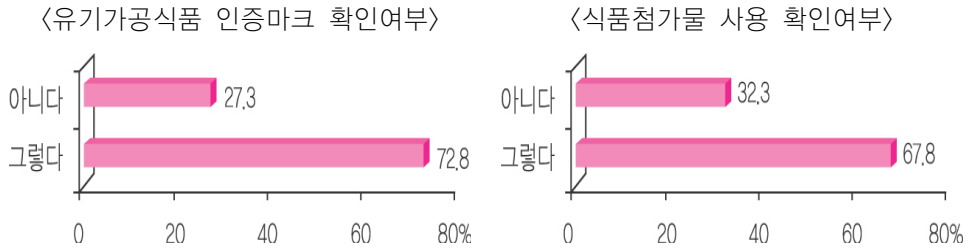
- 설문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구매경험자(400명)의 경우 연령대는 30대 40명(10.5%), 40대 182명(45.5%), 50대 이상 178명(44.5%)으로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득수준은 300~400만원대가 52.0%를 차지하였음. 구매비경험자(103명)의 경우 연령대는 30~40대가 70.9%를, 소득수준은 300~400만원대가 58.3%를 각각 차지하였음.

## 3.2. 조사결과

### 3.2.1. 유기가공식품 인식 및 구매행태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72.8%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의견도 67.8%로 높게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및 '식품첨가물' 확인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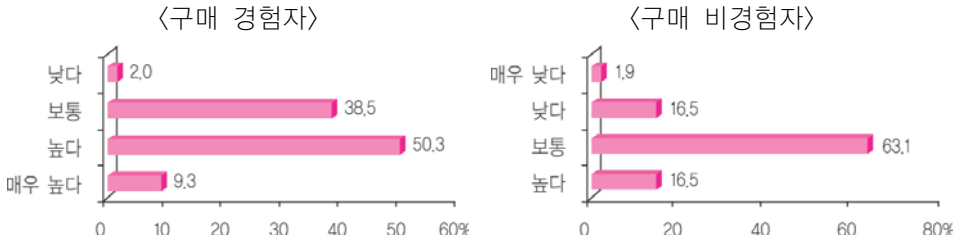



-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경험자의 응답비중이 더 높았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 가격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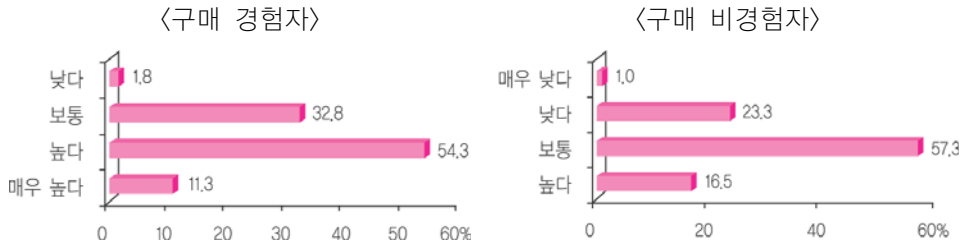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구매경험자의 만족수준은 '높다'는 응답이 59.6%로 비경험자의 16.5%보다 크게 높았음. 반면, 유기가공식품 구매 비경험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18.4%로 구매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 】




- 소비자들은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구매 경험자의 60% 이상, 구매 비경험자의 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안전성에 대한 만족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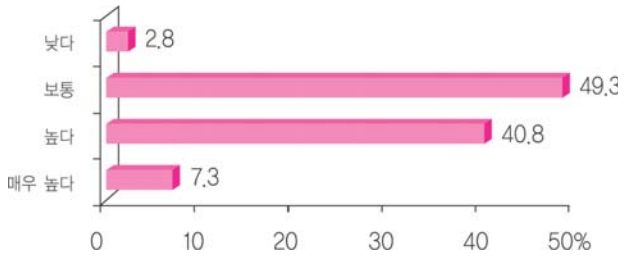



-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모두 국산을 더 신뢰하기는 하나, 구매경험자의 국산 신뢰비중이 20.3%P 더 높게 나타남. 반면, 구매 비경험자는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중이 19.4%로 경험자의 2.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 신뢰 비교 】

- 구매 경험자 기준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맛에 대한 만족수준은 48.1%로 인증제도 및 안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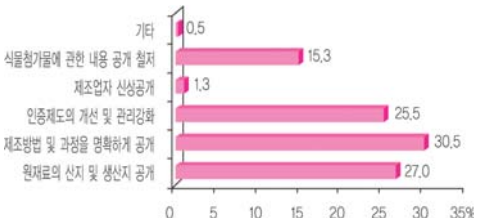
【 국산 유기가공식품 맛에 대한 만족수준(구매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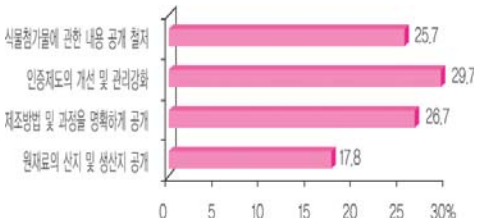

-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매경험자는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원재료의 산지 및 생산자 공개', '인증제도의 개선 및 관리강화'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으나, 비경험자는 '인증제도의 개선 및 관리강화',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 공개 철저'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신뢰도 향상 위한 필요사항 】

〈구매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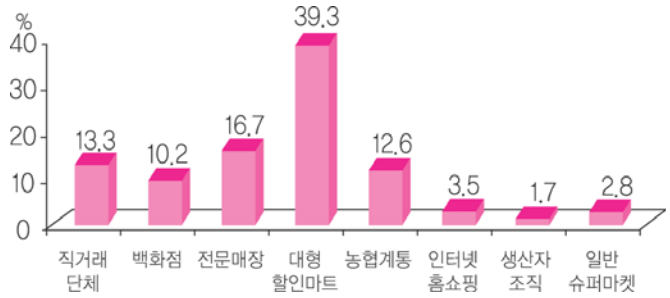

〈구매 비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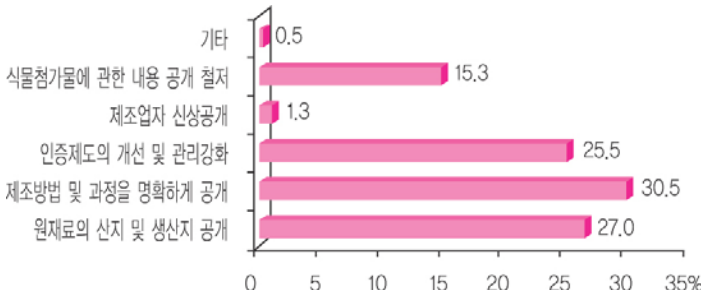

-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하였던 장소로는 '대형 할인마트'가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매장' 16.7%, '직거래단체' 13.3%, '백화점' 10.2% 등이었음.

- 위의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 39.1%,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28.8%,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공급' 17.4%,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12.0% 등으로 나타남.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장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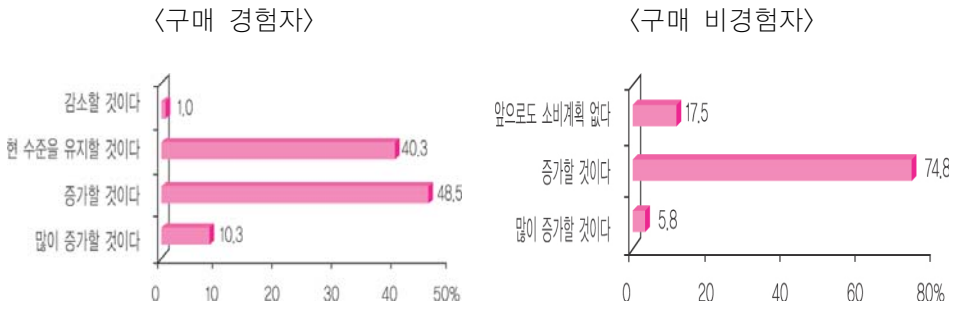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 】




### 3.2.2.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 구매 경험자의 58.8%, 구매 비경험자의 80.6%가 장래에 건강을 위해 안전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음.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 】




- 구매 경험자의 경우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높은 품목은 밀가공식품(20.3%)과 신선반찬류(20.3%)로 나타났음.
  - 현재 구매횟수와 비교시, 현재에도 구매빈도가 높은 신선반찬류, 밀가공식품의 구입확대 의사가 가장 높으며, 현재 구입횟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쌀가공식품, 조미양념류, 유아식/분유의 구입확대 의사도 높은 편으로 분석됨.

【 향후 구입확대 의사 큰 품목(구매 경험자) 】

단위: %

| 구입품목 | 비중 |
|---|---|
|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 14.5 |
|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 20.3 |
| 유아식 / 분유 | 11.5 |
|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 20.3 |
| 조미양념류 (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 11.8 |
| 다류 (녹차, 둥글레차 등) | 3.0 |
| 음료류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쥬스 등) | 7.3 |
| 과자류 (쿠키, 스낵, 씨리얼 등) | 9.8 |
|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 1.8 |

- 구매 비경험자의 경우 향후 구입할 경우, ‘신선반찬류’ 23.3%, ‘밀가공식품’ 17.5%, ‘조미양념류’ 11.7% 등의 순으로 구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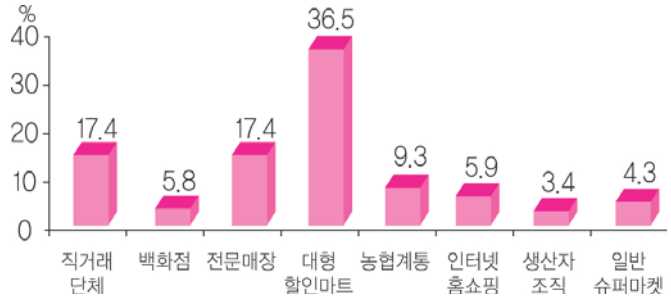
**【 소비의향 있을 시 향후 구입의사 큰 품목(구매 비경험자) 】**

단위: %

| 설문문항 | 비중 |
|---|---|
|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 6.8 |
|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 17.5 |
| 유아식 / 분유 | 5.8 |
|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 23.3 |
| 조미양념류 (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 11.7 |
| 다류 (녹차, 둥글레차 등) | 1.0 |
| 음료류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쥬스 등) | 8.7 |
| 과자류 (쿠키, 스낵, 씨리얼 등) | 4.9 |
|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 1.0 |

-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은 ‘대형할인마트 36.5%’, ‘직거래단체’ 17.4%, ‘전문매장’ 17.4%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주 구매처와 향후 구입 희망처의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농협계통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직거래단체, 인터넷홈쇼핑, 생산자조직 등의 비중은 증가함.
  - 연령별로 현재 구입처와 향후 구입처를 비교해보면, 20대만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은 감소함. 직거래단체에서의 구입의향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인터넷홈쇼핑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희망처(구매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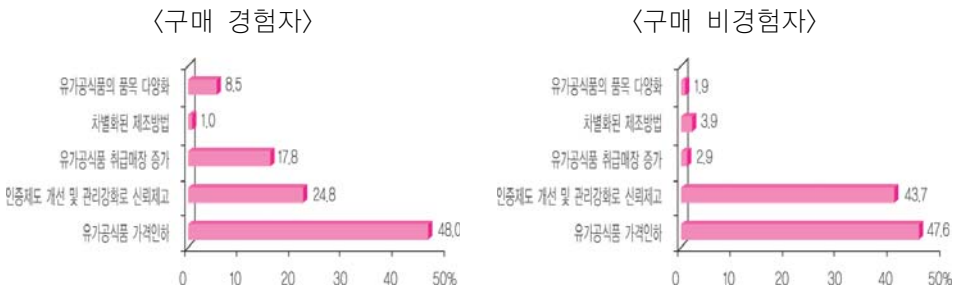

【 연령별 향후 구입희망처 】

단위: %

| | 직거래 단체 | 백화점 | 전문매장 | 대형 할인마트 | 농협계통 | 인터넷 홈쇼핑 | 생산자 조직 | 일반 슈퍼마켓 |
|---|---|---|---|---|---|---|---|---|
| 20대 | 6.7 | 8.3 | 18.3 | 48.3 | 0.8 | 13.3 | 0.0 | 4.2 |
| 30대 | 17.6 | 4.2 | 17.0 | 37.2 | 9.9 | 5.5 | 2.6 | 6.0 |
| 40대 | 20.3 | 8.3 | 19.4 | 31.4 | 9.4 | 5.0 | 4.2 | 1.9 |
| 50대 이상 | 18.4 | 4.0 | 13.8 | 36.8 | 12.6 | 4.0 | 6.9 | 3.4 |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입 확대를 위해서 구매 경험자는 가격인하(48.0%), 신뢰제고(24.8%), 취급매장 증가(17.8%) 등이 필요하고, 구매 비경험자는 가격인하(47.6%), 신뢰제고(4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향후 구입확대 위한 필요사항 】



-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향후 지불의사는 구매 경험자가 평균 1,508원, 구매 비경험자가 1,404원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의 가격차 2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

단위: 원

| | 일반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 | |
|---|---|---|---|---|
| | | 구매 경험자(A) | 구매 비경험자(B) | A-B |
|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 1,000 | 1,578 | 1,481 | 97 |
|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 | 1,500 | 1,349 | 151 |
| 유아식 / 분유 | | 1,693 | 1,610 | 83 |
|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 | 1,540 | 1,350 | 190 |
|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 | 1,538 | 1,390 | 148 |
|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 | 1,428 | 1,456 | △28 |
| 음료류(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 | 1,444 | 1,356 | 88 |
|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 | 1,391 | 1,320 | 71 |
|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 | 1,463 | 1,323 | 140 |
| 평 균 | | 1,508 | 1,404 | 104 |

### 3.2.3. 유기가공식품과 의료비 관계

- 조사대상 가구당 한달 평균 식료품 구입비는 47만 6천원으로 전체 소득의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가운데 유기가공식품 구입비는 평균 17만 7천원으로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기 전 한달 평균 의료비가 9만원 6천원이었다면, 소비이후에는 9만 3천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한달 평균 식료품비는 15만 9천원으로 이중 유기가공식품 구입비는 5만 5천원이었으며, 유기가공식품 소비이전 한달 평균 의료비는 3만 3천원에서 소비이후는 3만 1천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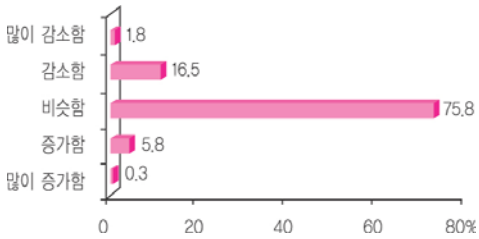
【 가구 및 1인당 한달 평균 식료품비, 유기가공식품비 및 의료비 】

| | | 식료품 | 유기가공식품 | | 의료비 |
|---|---|---|---|---|---|
| 가구당 | 구입비(만원) | 47.8 | 17.7 | 소비이전(만원) | 9.6 |
| | 구입비중(%) | 15.9 | 6.9 | 소비이후(만원) | 9.3 |
| 1인당 | 구입비(만원) | 15.9 | 5.9 | 소비이전(만원) | 3.2 |
| | 구입비중(%) | 14.9 | 5.5 | 소비이후(만원)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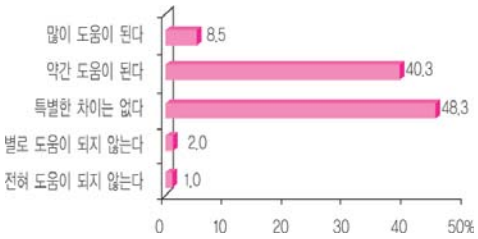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전후의 의료비 지출 비교 결과, '비슷하다'가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18.3%, '증가하였다'는 6.1%로 나타남. 국산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8.8%, '특별한 차이는 없다' 48.3% 등으로 분석됨.
  - 국산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의료비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에 비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기가공식품의 섭취가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소비자의 체감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국산 유기가공식품 구매 후 의료비 지출 및 건강증진 여부 】

〈구입 전후 의료비 지출 비교〉




〈건강증진 여부〉



## 4. 유기가공식품 소비촉진 방향

- 이 연구는 수도권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구매패턴, 향후소비의향, 지불의향 등을 조사하였음.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소비자들의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구매행태와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유기가공식품 소비촉진 방향을 도출하였음.

- 첫째, 향후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의 경우 58.8%, 구입 비경험자는 80.6%가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이와 같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 유기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방안 도출은 유용할 것임. 소비자조사 결과 특히 밀가공식품, 신선반찬류, 쌀 가공식품에 대한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식품 가공분야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거나 품목확대를 고려하는 가공업자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설문조사 결과 국산유기가공식품 구입 경험자 및 비경험자 모두 향후 유기가공식품의 구입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인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입경험자의 지불의향 가격은 1.5배, 구입비경험자는 1.4배로 나타나 국산원료-국산가공식품의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차이 2.02배를 크게 상회하므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예를 들어 정부는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거나 세금지원을 통해 국산유기가공식품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임.

- 셋째,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국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앞으로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 직거래단체, 전문매장 등에서 유기가공식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장소에서의 유기가공식품 구입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특히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코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 국산유기가공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유통업체들은 유기농식품 취급 전문매장도 보다 확대시켜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주택가의 편의점, 소규모 슈퍼마켓, 약국, 온라인 매장 등에서 유기농식품 취급비중을 늘려나가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넷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기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 유기가공식품의 다양화는 낮은 순위로 응답하였지만 일반 가공제품에 비해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업체는 일반 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에 있어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분유, 쌀가공식품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홍보의 강화가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가족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48.8%로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홍보전략 수립 시 유기가공식품과 건강과의 관계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함.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72.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7.8%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만약 유기 100%라는 인증마크가 새겨져 있지만 오히려 일반가공식품보다 위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안전성이나 웰빙 때문에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소비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5. 결론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향후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략은 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임.

- 유기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유기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수급조절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농산물의 공급이 필요함. 따라서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0년 4월 유기농식품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와 함께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유기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농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제도 등 전반적은 분야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연구는 소비실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조사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인터넷조사를 실시하면서 연령대를 사전에 어느 정도 고려하였음에도 젊은 계층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 한계도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행태 및 소비의향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산유기가공식품의 소비확대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야할 것임.

## 6. 참고 문헌

정학균, 장정경. 2011.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